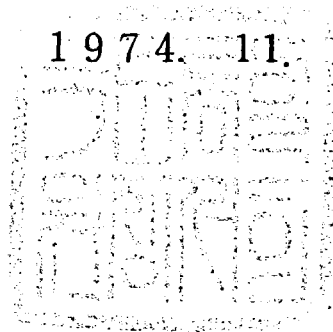


北韓의 消費水準 分析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에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11.

연구기관 : 고 려 대 학 교

연구책임자 : 김 완 순

目 次

| | |
|---------------------------------|----|
| I . 序 論 | 3 |
| 1 . 問題의 提起 | 3 |
| 2 . 研究의 範圍 및 方法 | 4 |
| 3 . 資料의 利用 | 5 |
| II . 北韓 消費構造의 變遷 (1945 ~ 65) | 7 |
| 1 . 巨視的 接近 | 7 |
| 2 . 生計費 및 賃金狀況 | 22 |
| 3 . 品目別 推移 | 45 |
| 4 . 教育 , 保健 및 厚生 | 62 |
| III . 最近 北韓의 消費生活 (1965 ~ 70) | 69 |
| 1 . 食生活 | 70 |
| 2 . 衣類 및 靴類 | 74 |
| 3 . 住 宅 | 76 |
| IV . 外國과의 比較 | 79 |
| 1 . 韓國과의 比較 | 79 |
| 2 . 中共과의 比較 | 82 |
| 3 . 蘇聯과의 比較 | 88 |
| V . 結 論 | 93 |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8.15 解放과 더불어 共產治下에 들어 간 北韓은 經濟的 側面에 있어서는 自由競争을 基盤으로 하는 南韓과는 달리 國家에 依한 完全 計劃經濟를 實施함으로써 生産·分配·消費 등이 國家의 手中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北韓은 經濟政策面에 있어서도 廢鎖經濟와 重工業 및 軍需工業의 育成을 第1의 目標로 삼음으로서 內的으로는 政治權力의 強化와 外的으로는 戰爭挑發의 可能性을 提高시켜 왔던 것이다. 即 北韓當局은 高度의 重工業化 乃至는 軍需産業化를 爲해서 必要한 投資資金 調達을 國民大衆의 榨取와 犧牲을 통해서 그 目的을 達成시켰던 것이다.

解放後 오늘날까지 北韓大衆들의 日常生活은 낮에는 協同農場 또는 工場에서, 그리고 밤에는 集會場에서 그들이 말하는 金日成 首領을 爲해서 個人的 幸福과 家庭의 平和를 全的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이러한 國家에 의한 榨取는 大衆들이 먹고, 입고, 살고 나아가서는 人間다운 삶을 營爲하기 위한 生活, 即 消費生活에 있어서도 例外는 아닌 것이다.

北韓國民들의 消費生活狀態는 分斷後 30餘年동안 “來日의 樂園”을 위한 “오늘의 地獄”의 生活이 繼續되어 왔다고 하겠다.

重工業 및 軍需産業의 育成을 위한 投資는 GNP의 約 30% (70年 31%)에 達했고, 66年 以後 다시금 戰爭準備에 狂奔하고 있는 北韓은 莫大한 金額을 國防費로 (70年 GNP의 23.3%) 浪費하여야 함으로써 結局 國民들의 消費生活이 어떠

한 가는 可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72年 以後 北韓과의 對話를 始作하여 온 우리에게 北韓研究는 相對方을 안다는 見地에서 相當한 意味를 갖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必要한 北韓研究는 單純히 상상적인 研究보다는 冷徹하고 合理的인 研究를 行함으로써 앞으로 닥칠 諸問題들에 對備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北韓의 消費生活에 關해서 우리는 다만 新聞紙上이나 말로 傳해 들은 바에 依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있다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眞正으로 그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들의 生活狀態의 特徵이 어떠한가? 그렇게 되었고, 또 實際로 生活水準은 어느 程度인가를 우리는 綿密히 分析 檢討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까지 行해진 北韓研究도 얼마가 되질 않지만, 消費生活에 關한 研究는 더구나 全無의 狀態이므로 本 研究는 北韓의 消費 構造 및 狀態에 關한 첫 試圖로서 可能한 限 研究의 對象이 北韓이라는 價值意識을 버리고 將來에 닥칠 南北對話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研究에 임하고자 한다.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現代의 消費生活의 測度는 單純히 먹고, 입고, 居住하는 衣·食·住 뿐만 아니라 教育의 程度, 健康狀態, 社會福祉 및 人間으로서 누릴 수 있는 自由의 程度等을 勘案한 包括적인 것들이 包含되어야만 할 것이다.

本 研究에서 北韓의 消費生活을 論함에 있어서도 該 範圍를

包括적인 것으로 보고 되도록 計數에 依해서 이들을 說明하고자 한다.

한편 分析方法은 우선 第2章에서는 消費構造의 變遷을 考察함에 있어서 解放直後(46年), 6.25直前(49年), 6.25直後(53年) 5個年開發計劃이 끝나고, 7個年計劃이 始作된 해인 60年, 北韓이 다시금 國防費를 大量 增額하기 始作한 65年, 그리고 70年을 各各 巨視적인 面에서 消費構造에 관하여 살펴보고, 生計費構成, 貨金 및 商品生産의 推移를 같은 方法에 依해서 分析해 보면서 解放前인 1940年을 參考로 比較해 볼까 한다.

第3章에서는 오늘날의 消費生活을 衣·食·住 및 保健·教育·厚生等の 面에서 그 樣相을 具體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70年代末의 北韓消費生活의 設計圖인 新6個年計劃의 消費面을 中心으로 考察함으로써 “오늘의 消費”와 “來日の 消費”를 比較 評價함과 아울러 經濟政策 特히 貿易의 變化를 考察함으로써 이것이 國內消費生活에의 影響을 檢討하고자 한다.

이어서 第4章에서는 國際적인 評價로 南韓·蘇聯·東歐等 可能한 限 比較研究를 통해서 北韓經濟構造의 矛盾點과 消費生活이 他國에 比해서 가지는 特性들을 分析하고 第5章에서 結論을 짓고자 한다.

3. 資料의 利用

大部分의 共產圈 研究가 그렇겠지만 特히 北韓이나 中共의 研究는 資料의 窮乏으로 因하여 언제나 限界에 부딪치게 된다.

北韓研究를 위한 資料는 北韓의 新聞이나 統計年鑑 및 演說文 같은 곳에서 그들이 宣傳을 위한 資料가 간혹 있을 뿐이고, 그것도 65年 以後에는 거의 發表가 되지 않으므로 本 研究에서는 国土統一院에서 發刊한 北韓經濟統計集(74.1.1)을 中心으로 하고 其他 國內外的 文獻들이 利用한 資料를 再 使用할 뿐이다.

다만 그 使用方法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Raw Data 를 分析의 対象으로 삼고, 숫자의 使用에 있어서는 北韓經濟統計를 오랫동안 다루어 온 統一院 實務者들의 意見을 참작하고자 한다.

II. 北韓 消費構造의 變遷 (1940~70)

1. 巨視的 接近

北韓에서 消費는 公共消費와 個人消費로 나눌 수 있는데 經濟體制가 全人民的 生産關係를 機軸으로 삼고 있으므로 모든 國民所得을 「社會를 위한 勞動으로서의 純生産物」로 集約시켜 이른바 社會消費의 公共部門이 消費形態를 대변한다. 이것은 北韓의 消費構造가 社會主義 經濟組織의 基本原理에 따라 集團적으로 充足하는 需要를 優先하는데 起因하며 이로서 國民所得의 分配過程에서 消費支出의 特性을 表現해 준다.

北韓은 社會主義的 消費와 全人民的 生産體制를 確立하기 위하여 이미 1946年 解放된지 불과 6個月만에 「土地改革」과 「産業國有化」措置를 단행하였다.

土地改革은 無償沒收, 無償分配를 原則으로 農業生産의 社會主義化를 造成하였고 重要産業國有化法令을 公布하여 生産企業의 全人民的 所有와 勞動階級の 社會主義的 生活體制를 確立하였다.

이같은 社會主義化의 基礎는 動亂後 1954~56年 동안의 2個年 經濟復興計劃 및 1957~60年 期間의 5個年 經濟計劃등을 통하여 이른바 集團化로서 推進되어 왔다. 住民生活은 社會主義 計劃화된 生活樣式 속에 묶어 集團化로서 制度化시켰으며 그것의 具體적인 形態는 生必需品에 대한 配給制의 實施 즉 糧券의 使用으로 나타나고 住居에서는 아파트群의 建築 및 農村集團住宅의 建立등을 통하여 集團生活의 強制化로 規制되었다. 또한 集團化의 最近 事情은 主婦들까지도 一切 부업으로부터의 解放을 推進

하여 食生活革新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밥工場, 반찬工場을 만들어 社會主義的 食事樣式을 適用시키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北韓의 消費構造를 巨視的 側面에서 아프로치하는 問題는 첫째, 概念上的 相異함을 면치 못하고, 둘째, 集團화된 社會的 消費라는 면에서 動態性을 規定할 수 없고, 셋째, 統計數値의 抽出이 不正確한 制約性 때문에 推論의 過程에서 敘述의 不完全함을 疑心케 한다.

다만 北韓에서 實物基準算式(MBS)으로 発表된 GNP 推計와 豫算 支出等에 根拠를 두어 社會的 消費 總括的인 패턴을 檢討해 보면 다음 表와 같다.

北韓에서 消費構造의 變遷은 生産段階의 發展過程에 相應해서 대충 3段階로 区分할 수 있다. 첫 段階는 韓因動亂 以前의 期間으로서 初期의 經濟建設段階로 集約된다.

이 當時 社會主義的 經濟基盤의 造成을 위하여 必要한 計劃經濟를 實施하고 1946년에 있었던 土地改革과 重要産業國有化를 통하여 生産手段의 90%를 國公有化 하므로서 消費體制 역시 配給制 糧券의 活用 및 日用消費의 抑制로 完全히 轉換시킨 時期이다.

이 當時는 小數의 私的企業이나 商業活動이 許容되어 있었고 그 외 地方産 原料를 使用하여 地方的 消費에 充當하는 手工業이 小規模의 消費物 生産에 利用된 바 있으나 全體的으로는 모든 生産手段의 國有化와 國營企業 및 協同組合企業으로 消費規制에 치중되었으며 生産은 重化學工業等 生産財生産으로 集中되었으므로 日用消費品 그 自体의 絶對量은 大부족 상태일 수 밖에 없었다.

<表1>

北韓의 国民所得과 消費

(1957=基準 不變價格)

| | 單位 | 1946 | 1949 | 1953 | 1956 | 1960 | 1965 | 1970 |
|-----------|--------|---------|---------|---------|---------|---------|---------|---------|
| GNP | 百萬圓 | 420.8 | 879.5 | 601.2 | 1,264.8 | 2,958.8 | 4,503.1 | 6,337.0 |
| 人口 | 千名 | 9,257 | 9,622 | 8,491 | 9,357 | 10,717 | 11,988 | 13,943 |
| (構成比)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貯蓄 | 百萬圓 | 126.2 | 263.9 | 200.4 | 421.6 | 821.9 | 1,345.0 | 1,964.5 |
| (構成比) | % | (30.0) | (30.0) | (33.3) | (33.3) | (27.8) | (29.9) | (31.0) |
| 國防費 | 百萬圓 | 84.2 | 175.9 | 34.7 | 54.2 | 63.5 | 237.7 | 1,475.3 |
| (構成比) | % | (20.0) | (20.0) | (5.8) | (4.3) | (2.2) | (5.3) | (23.3) |
| ① 消費額 | 百萬圓 | 210.4 | 439.8 | 366.1 | 789.2 | 2,071.2 | 2,920.4 | 2,896.0 |
| (構成比) | % | (50.0) | (50.0) | (60.9) | (62.4) | (70.0) | (64.8) | (45.7) |
| 一人當消費額 | 圓 | 22.7 | 45.7 | 43.1 | 84.3 | 193.3 | 243.6 | 207.7 |
| (增加指數) | 49=100 | (50.0) | (100.0) | (94.0) | (184.0) | (423.0) | (533.0) | (454.0) |
| ② 社會文化施設費 | 百萬圓 | 16.8 | 35.2 | 29.7 | 119.5 | 504.3 | 525.9 | 785.0 |
| (構成比) | % | (4.0) | (4.0) | (4.9) | (9.4) | (17.0) | (11.7) | (12.4) |
| ③ = ① - ② | 百萬圓 | 193.6 | 404.6 | 336.4 | 669.7 | 1,566.9 | 2,394.5 | 2,111.0 |
| 一人當消費額 | 圓 | 20.9 | 42.0 | 39.6 | 71.6 | 146.2 | 199.8 | 151.4 |
| (增加指數) | 49=100 | (50.0) | (100.0) | (94.0) | (170) | (348.0) | (476) | (360.0) |
| GNP 디플레이터 | 57=100 | | 62 | 207 | 104 | 96 | 117 | 130 |

註 ① 1946~49年 數値는

따라서 1957年 基準 北韓의 GNP (MBS 基準) 및 消費支出의 推移를 <表 1>에서 보면 46년에 北韓貨幣로 4億 2千萬원, 49년에는 그 두배가 넘는 8億 7千9百萬원이었다. 여기에 비해서 全体 消費額을 보면 46년에 2億 1千萬원, 49년에 그 두배가 넘는 4億 3千9百萬원으로 對 GNP 消費의 比重은 각각 50%이었다.

韓國에 있어서 消費性向이 90% 水準에 올라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北韓에서 50%의 消費水準은 極端의 耐乏을 強制한 結果로 指摘된다. 이 당시의 國民總生産物은 全体의 30%를 強制貯蓄으로 留保시켰고 全体의 20%는 國防費로 支出해서 結局 全國民의 消費生活를 完全히 遮斷시킨 가운데 重工業生産 및 國防力 集中으로 뺏어 옮긴 셈이다.

46年 當時 人口는 9百 25萬名으로 推計되어 있으며 韓國動亂 直前해인 49年度 入口는 9百 60萬名으로 거의 人口增加는 없었기 때문에 46~49年 3年 동안에 全体 消費額 絶對値는 倍加되고 있다. 많은 人口가 越南해 버렸기 때문에 같은 現狀이 나타난 것으로 思料되며 따라서 一人當消費額을 보아도 46년에 22원에서부터 49년에 45원으로 倍加되었다.

그러나 이같이 낮은 消費水準에서도 다시 北韓豫算支出에서 나타난 社会文化施策費가 全体 GNP의 4% 水準의 比重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다시 勘案해 볼 때 실질 一人當 消費額은 46年 20원에 불과하고 49년에는 42원에 불과하였다.

결국 46~49年 期間의 北韓의 消費는 社会主義的 消費構造를 編成하기 위해서 急速한 体制改編을 이루어 놓은 가운데 絶對額 消費水準은 대단히 낮은 狀態를 示顯해 주었다. 또한 消費水準이

所得의 함수라는 우리의 概念에 비추어 볼 때 北韓의 所得은 生産額으로 看徹할 수 밖에 없고 生産의 歸屬이 國家에 있는 限界 때문에 消費는 制限된 範圍內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消費生活 그 自体까지도 國家의 強力한 統制下에 놓여 있는 性格에 비추어 볼 때 결국 社會主義的 生産體制를 確立하기 위한 과도기적 狀況으로 46~49年 期間의 消費水準은, 가장 最低의 水準에 歸着될 수 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의 消費構造가 變化되는 둘째번 段階는 6.25 韓國動亂後에 戰後 復旧事業으로 推進된 「3個年 經濟開發計劃期間」(1954~56)과 그 뒤를 이어 正常的인 社會主義的 計劃經濟를 試圖한 이른바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期間」(1957~61)을 들 수 있다.

韓國動亂後 3個年計劃期間 동안에는 戰後復旧에 血眼이 되어 있었으므로 社會主義的 生産 및 消費의 政策基調를 견지하고 開發을 推進하였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事業의 性格이 戰後復興이란 觀點에 集中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國民生活의 消費패턴은 動亂前보다도 높은 水準으로 展開될 수 있었다.

3個年計劃은 北韓 自体의 投資財源을 調達할 能力이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工業部門만도 3億1千萬원에 달하는 莫大한 蘇聯 및 中共의 援助를 통해서 基本生産計劃을 成就시킬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國民生活 역시 비교적 수탈의 規制를 늦추고 있었다. 그들이指摘한 바와 같이 「戰後の 被害는 말로 表現할 수 없을 만큼 深刻하다. ----- 工業, 農村經濟, 鐵道, 運輸할 것 없이 人民經濟의 모든 부문들과 教育, 文化, 保健施設들이 여

지없이 破壞되었다.

「人民들은 住宅과 家具도구를 거의 다 잃어 버렸으며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매우 不足하였다」라고 하였으며 戰爭被害는 工業總生産額 64%, 그리고 消費財生産의 91%가 강그리 破壞되었다고 한다.

3 個年計劃의 基本課題는 ① 戰爭의 被害를 戰前해인 1949年 水準으로 回復시켜 놓자는데 있었으며 이에 곁들여 ② 從來 植民的 偏向性을 脱皮하여 새로운 生産體系를 確立하고 ③ 住民生活를 우선적으로 勞動할 수 있는 最低水準까지 끌어 올려 놓기 위해서 食料品工業, 水産業, 消費財(輕)工業 企業所를 1次的으로 復旧 發展시킬 것 ④ 農村經濟의 發展 ⑤ 農業, 輕工業, 食料品工業의 需要를 保障하고 人民經濟의 重要한 部分의 需要를 保障하는 重工業의 復旧, ⑥ 運輸·通信施設의 復旧 ⑦ 住宅建設, 厚生文化施設을 復旧하고 改建할 것 ⑧ 教育, 文化, 保健施設을 復旧 改建할 것 ⑨ 技術者 養成 등으로 네 세운 바 있다.

이로써 보건데 이 當時의 北韓經濟는 주로 戰爭으로 破壞된 人民生活의 復旧가 核心課題이며 이를 위한 消費財工業 특히 食料品工業 및 農業의 復旧 그리고 住宅, 教育, 文化, 保健 등에 集中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國民의 消費生活를 一定한 基礎에까지 끌어 올려 놓겠다는 課題를 우선해서 推進한 셈이다.

과라서 1953~56年 期間 北韓의 國民所得을 보면 1949年 水準 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6億1千萬원에서 出發해서 56년에는 12億6千4百萬元으로 크게 伸張되고 있으며 人口 역시 1949年 보다도 훨씬 적은 8百49萬名으로 集計되어 있고 이는 56년에 이르러서도 49年 人口에 못미치는 9百35萬名에 不過한 實情이

었다.

國民所得은 상당한 成長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것도 自体投資財源에 의한 것 보다도 莫大한 援助財源에 의한 外資導入이 奏效 하겠기 때문에 적은 人口數를 勘案해 볼 때 이 當時의 消費水準은 戰爭의 被害에도 불구하고 戰前의 水準보다도 훨씬 높다.

1953年 北韓의 消費額은 3億6千6百萬원으로 49年의 4億3千9百萬원 보다는 낮지만 全体 GNP 支出 속에서 消費의 比重은 한결 높아 49年의 50%에 비해서 60.9%로 越等히 높다.

또한 1956年에 이르러서는 戰前 消費額의 2배에 달하는 7億8千9百萬원으로 急增하였고 全体 GNP 支出 속의 消費支出의 比重도 훨씬 높은 62.4%에 달한다.

1953~56年 期間에 北韓의 豫算支出에 反映된 社会文化施策費 역시 그 比重이 戰後 水準보다 높은 4.9%에 달하고 56년에는 그 4배에 達하는 1億1千9百萬원으로 무려 9.4%에 이르는 比重을 占有하고 있다.

따라서 全体 消費額 속에서 公共으로 支出되는 社会文化施策費를 除外한 1人當 純消費額도 1956년에는 71원에 달하여 49년에 비해서 70%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1人當 總消費額은 84원으로 이것의 49年을 基準한 增加率은 84%에 달하고 있다.

결국 3個年 戰後復旧計劃에 의해서 그들이 基本政策課業으로 내 세운 住民生活의 確立이란 課業이 強力하게 反映된 셈이며 이같은 순조로운 与件의 造成은 당시의 莫大한 軍事費支出에도 불구하고 外國의 援助財源이 큰 效果를 미쳤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人民勞動力의 確保를 위한 不可避한 消費水準의 確
立이라고 規定할 수 있다.

勞動力의 確保는 이 當時 가장 切實한 問題로서 勞動党中央委
員會議에서 報告된 바와 같이 「한 勞動者가 2~3日이면 完成
할 일을 100여명의 勞動者가 完成하였다」고 할 만큼 勞動生産
성이 낮았으므로 消費水準을 높여 勞動의 再生産能力을 마련해야
되는 課題가 必要하였다.

1957년부터 61년까지 進行된 5個年計劃期間 동안에 北韓은
소위 「戰後復旧建設第2段階」의 基本經濟政策 路線을 推進하였는
데 ① 社會主義的工業化의 土台위에 物質技術的 條件의 準備
② 農業의 協同化와 個人商業의 社會主義的 改造 ③ 人民의 衣
食問題의 基本的 解決이라는 課題를 내걸고 이른바 生産關係의
社會主義的 制度로의 移行을 期待하였다.

生産 및 消費의 一切 機構를 協同的所有로 하거나 國家가 唯
一的으로 支配한다는 計劃이 社會主義的 生産關係로의 改造이다.

이로서 이 期間동안에 상당한 工業建設, 그리고 農業의 集團化
와 手工業 및 商業의 私營을 完全히 廢止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當初 그들이 내세운 人民生活의 改善·向上시킨다고 力
說한 基本路線은 住宅建設이 59%밖에 達成되지 못하였고 綿織
物生産도 目標에 未達되는등 큰 成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결국 第2段階 經濟計劃들이 一連의 基本政策課題를 達成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뒤에 「緩衝期經濟計劃」에서 ① 農業의 機械
化 ② 住民生活의 向上 ③ 勞動生産性的의 增大등으로 集約된 政
策目標가 이를 立證하며 同時에 生産增大를 위한 消費水準의

向上을 항상 追求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할 수 없다.

5 個年計劃期間 동안에 北韓의 國民所得은 倍加되었다. 60 年の 人口數는 1 千 71 萬名으로 緩慢한 增加를 보였는데 國民所得은 29 億 5 千 8 百萬 원으로 2 倍의 增加를 이룩했으며 이에 따라 消費 水準도 3 個年計劃期間보다 2 倍以上 增大되었다. 60 年の 總消費 額은 20 億 7 千萬 원으로 對 GNP 消費의 比重은 70 % 水準으로 올라섰고 이에 따라 1 人當 消費額도 193 원으로 1949 年에 比 해 增加指數는 423 을 記錄하여 5 個年計劃期間 동안에 2 倍以上 增加하였다.

社會文化施策費의 支出도 60 年에 5 億 4 百萬 원으로 計劃期間 동 안에 4 倍가 늘어나서 그 比重은 11.7 % 에 達하는데 이는 國家 豫算을 통한 公共支出의 國民生活에 寄與하는 政策이 強力하게 反映되고 있음을 立証해 준다.

이들 다시 全體消費額中에서 社會文化施策費를 除外한 純消費額 으로 抽出해 보면 1 人當 純消費額은 146 원이며 1949 年 基準 增加指數는 348 으로 約 3 倍의 增加에 달하고 1956 年에 比해 서 5 個年計劃期間 동안에 2 倍以上 增大된 셈이다.

北韓에서는 經濟開發計劃을 社會主義的으로 實行한 當初부터 항 상 住民生活의 向上을 부르짖어 왔고 이를 社會主義的 集團化로 엮어 消費의 抑制 속에서 生活向上을 기할려는 政策으로 臨해 왔으며 窮極的으로는 社會主義的 重工業을 確立하기 위한 勞動生 産性의 增大로 歸一시켜 온 사실이 注目된다.

그러나 이 같은 住民生活向上이란 政策의 置重에 比해서 成果는 사실 적은 편이며 1946 年 以來 끊임없이 消費水準을 크게

擴大해 온 것 처럼 統計値는 나타나 있지만 出發點이 워낙 脆弱한 狀態이었기 때문에 결국 勞動力의 再生産이 어려운 실정의 消費水準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60年의 消費額이 비록 GNP의 70%에 달하는 比重으로 높아져 있다 해도 이 當時 國防費支出이 相對적으로 減少하여 1956年의 國防費의 比重이 33.3%이었던 것이 60년에는 27.8%로 줄어 든 사실을 勘案해 보면 國防費의 相對的 節減에 의한 消費支出의 增加 이외에 다른 意味는 成立되지 않는다.

北韓에서 社會主義的 消費構造를 確立하려고 試圖한 第3段階는 1960~67年 동안의 「7個年經濟計劃」期間이며 이 計劃은 다시 3년이 延長되어 결국 70년에 終了되었으므로 1960~70年 期間의 10年 동안을 規定할 수 있다.

원래 7個年經濟計劃은 目標年度인 67년에 生産目標에 있어서 工業總生産額 3.2倍, 그중 消費財産額을 3.1倍만큼 達成시키고 年平均 成長率 18%를 設定한 바 있다.

施行에 있어서 基本課題는 前期 3年, 後期 4年으로 나누어 前期 3년에는 ① 重工業基地의 整備 ② 消費財工業原料基地의 造成 ③ 消費擴大와 品質向上 ④ 農村經濟의 發展과 住民生活의 向上등으로 策定하고 主로 消費生活水準의 基盤을 確保하는데 置重하며 이를 土臺로 重工業建設을 試圖하였다.

後 4年の 基本課題는 ① 重工業基地의 擴張 ② 技術裝備의 強化 ③ 人民生活의 向上등이다.

以上으로 미루어 보면 社會主義的 重工業의 建設이 至上課題이기는 하나 이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原料基地의 造成

및 品質提高 등 住民生活의 굳건한 土台가 要請되는 점을 밝히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消費水準의 均衡發展은 소기의
成果를 전혀 期待하지 못하고 消費와 生産의 不均衡까지 겹쳐
7個年計劃 自體의 3個年延長을 自招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이 當時의 北韓은 手工業이나 商業 및 個人企業 등 私營
活動을 완전히 除去시키고 集團化 生活로 들어간 뒤이므로 消費
의 패턴도 완전히 共產諸國에서 보는 바와 같은 社會消費로서
集中되는 形態이다.

個人消費支出은 勞動力의 再生産에 必要的한 貨金水準에 얽매어
놓고 大部分을 社會的消費로 誘引하는 것은 可用資源中에서 可及
的 最大의 生産的支出 즉 投資支出로 轉換하므로써 消費支出 그
自體가 經濟의 成長力과 一致시키려는 政策때문이다.

결국 統計數値에서 보는 消費額의 增大 또는 消費水準의 向上
은 社會的消費에 充當된 나머지 實質消費水準은 固定되어 있거나
低下되는데 불과하다는 점을 指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7個年計劃」期間中인 1965年의 國民所得은
45億3百萬弗로 增大되었고 이 때의 人口는 1千1百98萬名,
그리고 國防費支出比重은 56年 보다 낮은 29%이었으므로 總
消費額은 29億2千萬원으로 對 GNP 比重은 64.8%를 示顯하
였다. 이같은 消費의 比重은 1960年의 70%에 비해서 훨씬
낮아진 狀態이며 國防費의 比重이 다소 높아진 것 이외에 社會
貯蓄의 比重이 다소 높아진 때문이다.

1人當 消費額을 보면 243원으로 60년에 비해 110% 增加
한 셈이지만 對 GNP 全體構成에 있어서의 比重이 낮아지므로써

北韓의 消費水準은 60年을 最絶頂으로 점차 低下되기 始作하였다.

65年의 社会文化施策費 역시 5億2千5百万원으로 全体의 比重이 11.7%에 불과하여 60年의 17.0%에 비해 훨씬 低下되었으며 社会文化施策費를 勘案한 1人当消費額은 199원으로서 相對적으로 낮아졌다.

7個年經濟計劃의 推進은 그 自体가 不連續線을 긋고 있지만 특히 消費構造의 變化에 있어서 協同化 및 集團化를 통한 社会主義的 消費의 強化로 個人消費가 萎縮될 수 밖에 없었고 더구나 全体 國民所得의 比重이 減少되는 事例를 빚어 내기에 이르러 消費類型의 變質을 招來한 時期이다.

이같은 消費構造의 變化는 7個年計劃의 進陟이 不實한 데서 緣由하며 그 理由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指摘한 바와 같이 “國內外情勢의 變化로 因한 國防力의 強化때문에 經濟發展이 遲延된 때문이다.

1964年을 기해서 韓國은 새로운 5個年計劃으로 經濟發展이 刮目할 만 하게 展開된 점, 또한 韓國의 越商派兵으로 國際的地位가 改善된 情勢에 커다란 威脅을 느낀 北韓은 7個年計劃의 当初目標이었던 人民經濟生活의 向上에 의한 重工業建設을 拋棄하고 막바로 軍需工業과 重工業을 強化해서 國防力을 增強해야 할 課題에 直面하고 이 때문에 消費財 輕工業部門의 生産을 減退시키면서 消費抑制를 強化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要因으로 들 수 있는 것은 軍需重工業建設에 置重한 結果로 發生하는 物價上昇의 壓迫을 피할 수 없었으며 1960~65年 期間에 GNP 디플레이터는 21% 物價上昇을 提示하고 있는

바와 같다. 또한 人口增加率이 늘어난 要因도 결들여 說明된다. 그리고 國際的인 要因中에는 中·蘇 이데오로기 紛爭으로 因한 對北韓援助의 全面中斷이 크게 經濟計劃을 破壞시킨 것으로 指摘된다.

어떻든 7個年計劃推進을 위한 投資財源의 순전한 自体調達로 因해서 財源의 貧困을 면치 못하면서 國防力의 增強을 위한 軍需重工業의 建設을 더욱 置重하다 보니 결국 消費의 最少限의 抑制政策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었으며 消費構造의 歪曲된 變型이 惹起된 셈이다.

이와같이 北韓의 7個年計劃이 變型과 失敗에 따른 不振相을 露呈하므로써 北韓住民들의 經濟生活은 酷甚한 肉体勞動에도 불구하고 消費生活의 萎縮을 自招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더구나 軍事力의 增強에 따른 社會的 貯蓄의 壓迫과 全人民 武裝化에 의한 物的資源의 消耗까지 결들여 심한 制約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66年의 北韓 勞動黨代表者會議에서도 “지난 5~6年間 繼續 增大된 戰爭의 危險에 對備하여 國防力 強化에 많은 比重을 돌렸기 때문에 7個年計劃의 調整이 不可避 하였다” 라고 指摘하면서 1967年에 終了할 豫定으로 되어 있는 7個年計劃을 3年間 延長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7個年計劃은 1970年에 10年에 걸려 끝이 났는데 이 같은 失敗의 原因을 評價하되 ① 資本과 技術의 不足은 中蘇紛爭으로 援助供與가 끊어진 때문이다. ② 勞動力不足과 生産意慾의 減退는 저급한 生活條件으로 生産意慾이 없어지고 生産品의 品質이 낮아졌다. ③ 計劃管理의 未熟은 일관 성없는 計劃遂行

으로 統制機能이 円滑하지 못하였다. ④ 各 部門의 不均衡은 重工業과 消費財工業의 乖差工業과 農業의 隔差 및 婦女勞動의 差異등을 들어냈기 때문이라고 보고 하고 있다.

7 個年計劃에서 消費財部門과 社会間接資本部門은 國防費支出의 加重이 投資面에서 完全히 置換되므로서 目標의 90%에 未達되는 実績밖에 達成하지 못하였다. 특히 住居建設事業은 最下로 不振하였다.

1970 年에 이르러 北韓의 國民所得은 63 億 3 千 7 百萬원으로 年平均 8% 成長을 한데 불과하며 이중에서 社会貯蓄은 19 億 6 千 4 百萬원으로 全体의 比重은 31%나 되어, 60 年の 27% 보다 다시 높아졌다. 國防費支出은 엄청나게 늘어나서 70 年에 14 億 7 千 5 百萬원으로 全体의 무려 23.3%나 占有하였으며, 60 年에 그 比重이 不過 2.2% 및 65 年에 5.3%에 비해 10 倍 내지 5 倍의 急増勢를 보였다.

이 때문에 總消費額은 크게 줄어 70 年에 28 億 9 千 6 百萬원으로 全体의 比重은 45.7% 大幅 低下되었는데 60 年の 比重 70% 및 65 年の 比重 64.8%에 비하면 거의 半減한 셈이다.

이로서 1 人當 消費額 207 원에 불과하여 65 年の 243 원 보다 絶對額이 크게 줄어 들었고 60 年の 793 원 水準으로 後退하여 이 期間의 物価上昇率 13%를 勘案해 보면 實質消費 水準은 밑바닥으로 떨어진 셈이다.

社会文化施策費 역시 比重이 12.4%로서 60 年の 17% 보다 크게 低下되었고 65 年の 11.7%에도 뒤지는 형편이며 이를 勘案한 1 人當 純消費額은 151 원에 不過하다.

北韓의 消費構造에 관한 巨視的 分析은 所得概念이 物的總生産物의 形態로 集計되므로 總生産의 水準에 다르지만 生産에 있어서도 重工業 爲主로 投資開發을 施行해 가는 경우 消費財工業의 심한 萎縮에 의해서 消費生活이 沮害되기 마련이고 또한 國民所得의 支出構成에 있어서도 國防費 및 社会貯蓄의 比重이 強制되며 消費支出은 顯著하게 減退될 수 밖에 없다.

北韓에서 發表된 資料를 통해서 1960~70年間의 工業構造의 推移를 보면 다음 <表 2>와 같다.

<表 2> 北韓의 工業構造(1960~70)

(單位: %)

| | 生産財工業 | 消費財工業 | 全体工業 |
|--------------|-------|-------|-------|
| 1960 | 55.0 | 45.0 | 100.0 |
| 1961 | - | - | 100.0 |
| 1962 | 53.0 | 47.0 | 100.0 |
| 1964 | 53.0 | 47.0 | 100.0 |
| 1968 | 54.0 | 46.0 | 100.0 |
| 平均成長率 | 13.9 | 10.8 | 12.8 |
| 1961~70倍数(倍) | 3.7 | 2.8 | 3.3 |

生産財工業 對 消費財工業의 比가 62年에 53 : 47인 것이 68年에는 54 : 46으로 變化되었고 生産財工業의 平均成長率은 13.9% 높은 반면 消費財工業의 成長率은 10.8%로 낮다.

따라서 1961年 基準 70年의 全体工業은 3.3배가 늘어 났

는데 그 중에서 生産財工業은 3.7倍나 圧倒적으로 늘어난 반면 消費財工業은 불과 2.8倍가 늘어난데 불과하다.

이로서 볼 때 北韓은 특히 7個年計劃期間인 1961~70年 期間에 生産財 重工業에만 置重하였고 消費財 輕工業은 疎忽히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住民生活의 向上이나 消費水準의 增大는 基本路線과는 달리 뒷전으로 쳐져서 오히려 크게 萎縮되는 결과를 빚어 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生計費 및 賃金狀況

北韓의 家計消費支出의 内訳을 보면 北韓 社会構造의 特性에 비추어 여러가지 制約을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消費者主權 또는 消費者選擇의 自由를 無視하는 形態로 制約된다. 住民生活의 集團化 및 協同化를 取하므로써 勞動者나 事務員이나 居住移轉의 自由를 肅박하므로써 配定된 住居地를 벗어날 수 없으며 定해진 職級에 따라 地位가 区分되므로 消費品이나 便宜施設의 利用이 規定된다.

따라서 消費者들의 消費行動은 처음부터 制約되어 있기 때문에 生計費構成의 特徵에 있어서도 食料費, 住居費 * 教育費 또는 被服費, 家具類購入費, 燃料照明費 및 文化衛生費등 消費支出構造가 簡略하게 定해진다.

自由社会와는 달리 全般적으로 飲食費 및 被服費나 文化衛生費의 比重이 낮아지는 現狀이 北韓社会의 消費支出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恩格系数와 슈바베法則이 二律背反적으로 作用하는 形態이며 오직 住民生活에 대한 國家管理로 因하여 招來되는 結果

라고 볼 수 있다.

北韓의 賃金體系도 經濟가 國家의 統制下에 있기 때문에 短期的으로는 固定되는 現狀을 찾아 볼 수 있으며 一定한 期間을 놓고 보면 賃金制度가 幅넓게 變化되는 傾向을 나타낸다. 이는 工業의 發達에 따라서 勞動生産性이 急速히 上昇되고 이에 따라 賃金格差가 縮少되어 가는 自由制 勞動市場의 賃金決定의 原理와는 다른 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住民生活에 있어서 生計費의 消費支出과 勞動賃金에 있어서 所得決定이 國家統制下の 一貫된 體系에 묶여 있는 關係로 自由市場의 價格決定의 原理는 찾아 볼 수 없는 特性이 存在한다.

가. 生計費構成의 變化推移

北韓의 住民生活은 消費者主權이 전혀 考慮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個人生計費支出의 動向은 公共消費支出의 巨視的 範圍內에서 完全히 制約된다. 北韓 豫算의 歲出 속에 包含된 社會文化 施策費가 주로 政府機關이 住民에 대하여 直接的으로 料金を 徵收하지 않고 供與하는 保健, 教育 및 社會의 모든 서비스 등으로 惠沢을 주는 셈이다.

따라서 住民들의 生計費支出에서는 이들 社會文化施策費로 供與된 여러 費用들은 負擔되지 않고 순전히 個個의 生活에 所要되는 費用으로 나타난다.

앞 章에서 敘述한 社會的消費支出이 이로서 住民負擔을 덜어 주는 役割을 하는 것으로 看做되므로 例로서 生計費支出에서는 教育費負擔 같은 것들은 除外된다.

最近年間 社会文化施策費는 全体 歳出豫算에서 다른 部門 例로서 人民經濟費나 国防費등의 增加보다 높지 않다.

이것은 住民生計에 대한 国家的 配慮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表 3> 歳出豫算과 社会文化施策費의 比重

(单位:百万弗)

| | 歳 出 | | 人民經濟費 | | 社会文化施策費 | | 国防費 | | 其他 |
|----|---------|-----|---------|------|---------|------|-------|------|------|
| | 金額 | 構成比 | 金額 | 構成比 | 金額 | 構成比 | 金額 | 構成比 | 金額 |
| 66 | 1,389.6 | 100 | 946.4 | 68.1 | 239.0 | 17.2 | 138.9 | 10.0 | 65.3 |
| 67 | 1,536.2 | 100 | 777.3 | 50.6 | 268.8 | 17.5 | 467.0 | 30.4 | 27.1 |
| 68 | 1,872.7 | 100 | 915.7 | 48.9 | 322.1 | 17.2 | 607.7 | 32.4 | 28.2 |
| 69 | 1,964.4 | 100 | 939.0 | 47.8 | 387.0 | 19.8 | 608.9 | 31.0 | 39.5 |
| 70 | 2,335.6 | 100 | 1,267.8 | 54.3 | 397.0 | 17.0 | 735.7 | 31.5 | 35.1 |

註: 社会文化施策費: 教育, 学校建設, 保健事業費等 其他는 国家機關 管理費임.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歳出總額과 社会文化施策費의 關係는 66年 1,389 百万弗의 歳出속에 239 百万弗의 社会文化施策費를 構成하여 그 比重은 17.2%이었다.

이 때 人民經濟費의 比重이 68.1%, 国防費 30.3%이었으나 1968年에 와서 歳出總額은 1,872 百万弗에 社会問題施策費는 17.2%로 同一한 比重을 占有한데 대해서 人民經濟費는 48.9%

로 떨어졌고 國防費는 무려 32.4%로 3배나 增加하였다.

따라서 이 때부터 絶對적으로 이미 住民生活은 國防爲主의 政策에 눌려 버린 셈이다.

1970年에도 歳出總額이 2,335百万弗에 대해서 社会施策費는 3,997百万弗로 그 比重은 17.0%로 오히려 減少하는 傾向이고 人民經濟費 54.3% 國防費 역시 31.5%로 繼續해서 높다.

이로써 볼 때 最近 年間 北韓의 住民生活은 別로 向上을 할 수 없는 与件에 놓여 있는 사실은 찾아 볼 수 있다.

北韓住民의 生計費를 把握하기 위한 基礎로서 우선 住民의 成分이 如何히 構成되어 있는가를 檢討해 보자. 우선 北韓에서 住民이라 하면 이를 社会階層別構成으로 볼 때 勞働者와 事務를 보는 精神勤勞者로서 勞務員, 農業協同組合員과 個人農民 및 協同 團體加入員 그리고 個別 手工業者 및 技術者, 專門家 및 商人등 으로 分類된다.

이들 社会階層別構成比率은 다음 <表 4>와 같다.

1946年 解放直後에는 全体 74.1%가 個人農民이었고 勞働者는 12.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勞働者의 數는 繼續 政策의 뒷받침을 받아 늘어나서 韓國動亂後 1953년에는 全体의 21.2%로 2배가 增加하였고 60년에는 38.3%, 65년에는 全体의 41.0%를 차지하고 있다.

農民의 需要가 65년에는 全体의 40.8%로 急增하였다.

이것은 個人農民이 이미 1956년에 完全히 消滅되어 農業協同 組合員으로 偏入된 構成比이다. 勞働者의 數는 勞務員까지 합하면 57.5%로 절반을 넘고 여기에 協同組合農民까지 합하면

全体的 98.5%는 完全히 農民과 勞動者로 構成된 北韓의 住民이다.

<表 4>

北韓住民의 社会階層別 構造

(單位: %)

| | 46 | 49 | 53 | 56 | 59 | 60 | 63 | 65 |
|---------|------|------|------|------|------|------|------|------|
| 勞 動 者 | 12.5 | 19.0 | 21.2 | 27.3 | 37.2 | 38.3 | 40.1 | 41.0 |
| 勞 務 員 | 6.2 | 7.0 | 8.5 | 13.6 | 13.4 | 13.7 | 15.1 | 16.5 |
| 農業協同組合員 | - | - | - | 40.0 | 45.7 | 44.4 | 42.9 | 40.8 |
| 個人 農 民 | 74.1 | 69.3 | 66.4 | 16.6 | - | - | - | - |
| 協同團體加入者 | - | 0.3 | 0.5 | 1.1 | 3.3 | 3.3 | 1.9 | - |
| 手工業者 | 1.5 | 0.6 | 0.6 | 0.3 | - | - | - | - |
| 個人手工業者 | 0.2 | 0.1 | 0.1 | - | - | - | - | - |
| 專 門 家 | 3.3 | 1.7 | 0.2 | 0.6 | - | - | - | - |
| 商 人 | 2.2 | 1.8 | 1.5 | 0.5 | 0.4 | 0.3 | - | 1.7 |
| 其(組合員)他 | | | | | | | | |

그외 65年 以後에는 個人手工業者나 個人商業人등 住民은 完全히 消滅되어 있다.

카라서 現在 北韓의 住民은 勞動者 및 事務員(勞務員)과 協同農場員(農業協同組合員)들이고 그외 一般別個組合加入자들이 少數 있을 뿐이다.

이들 住民들 중에서 統計로 窺아 본 勤勞者는 全体的 45.1%이고 나머지는 扶養家族인데 이들은 全体的 54.9로 1人당

1.2 名の 扶養을 받고 있는 셈이다.

北韓住民들의 生計費支出推移는 <表 5>와 같다.

<表 5> 生 計 費 構 成

| | | 飲食費 | 被服費 | 住居費 | 家具類 購入費 | 燃 料 照明費 | 文 化 衛生費 |
|---------------------------------|-----------|--------|--------|-----|------------|------------|------------|
| 勞 動 者 및 事 務 員 | 1956 | 57.8 % | 24.8 % | 0.8 | 2.5 | 2.4 | 11.7 |
| | 1957 | 58.7 | 21.2 | 0.7 | 3.1 | 2.3 | 14.0 |
| | 1958 | 49.8 | 30.0 | 0.8 | 2.9 | 2.1 | 14.4 |
| | 1959 | - | - | - | - | - | - |
| | 1960 | 47.3 | 30.9 | 0.7 | 3.6 | 2.3 | 15.0 |
| | 1961 | 47.9 | 28.4 | 0.6 | 4.5 | 2.8 | 15.8 |
| | 1962 | 46.5 | 29.9 | 0.6 | 3.8 | 2.3 | 15.9 |
| | 1963 | 55.5 | 29.6 | 0.6 | 4.3 | 2.8 | 17.2 |
| | 1967 (推定) | 30.5 | 24.3 | - | - | - | - |
| 協 同 農 場 員 | 1956 | - | - | - | - | - | - |
| | 1957 | 77.2 | 14.3 | - | 1.9 | 0.5 | 6.1 |
| | 1958 | 70.2 | 18.7 | - | 1.7 | 0.8 | 8.6 |
| | 1959 | 66.4 | 21.4 | - | 1.7 | 1.1 | 9.4 |
| | 1960 | 67.2 | 22.4 | - | 1.9 | 1.2 | 7.3 |
| | 1961 | 61.9 | 25.7 | - | 2.3 | 1.4 | 8.7 |
| | 1962 | 58.9 | 23.8 | - | 2.3 | 6.9 | 8.1 |
| | 1963 | - | - | - | - | - | - |

앞에서도指摘한 바와 같이 生計費 構成의 特徵은 國家豫算
중에서 社會文化施策費로 支出되는 項目 즉, 基本的인 醫療費나 教
育費 및 住居費가 免除되고 이는 無料이다. 이들을 除外한 다른
個人支出들 즉 飲食費, 被服費, 住居費, 家具購入費, 燃料照明費, 文化
衛生費등이 支出項目이다.

여기서 國家에서 無料로 惠沢받는 項目과 個人支出項目이 겹치는
것이 있는데 그 理由는 첫째 北韓에는 住居地 移動이 統制되고
있는 點, 둘째 食糧配給券이 없는 사람은 別途로 個人負擔하는 點
등이 區別되어 있어서 두가지가 다같이 包含된다.

1956年에 보면 勞動者들의 飲食費는 全體支出의 57.8%로 제
일 높고 被服費 24.8%, 그리고 文化衛生費가 11.7%로 높다.

이것이 60年에 보면 飲食費의 比率은 減少되어 49.8%로 줄
고 被服費는 30%로 높아지고 文化衛生費도 14.4%로 높다.

67年에 보면 飲食費는 30.5%에 不過하며 被服費는 약간 줄
어서 24.3%인데 比해 文化衛生費의 支出은 17.2%로 크게 높아졌다.

이로서 볼 때 飲食費의 比重이 減少하는 경우 生活水準은 늘
다고 하겠으나 文化衛生費가 높아지므로서 마치 英鎊係數와 슈바
베法則이 混合된 形態이다.

특히 67年의 경우 文化衛生費, 家具購入費 및 燃料照明費 및
其他는 從來보다 점차 높아져서 全體 支出의 45.2%나 되는 셈
인데 이 때문에 北韓의 住民生活이 하나도 늘었다고 볼 수가 없다.

한편 農民들의 生計費構成狀況을 보면 같은 推移를 볼 수 있는
데 57年의 飲食費支出이 점차 減少해서 62年에는 全體支出의
58.9%를 차지하고 文化衛生費는 57年의 6.1%로부터 62年에

8.1%로 늘어났다.

家具購入費, 燃料照明費, 文化衛生費 및 其他를 합해서 18.3%에 이른다.

被服費는 57年 14.3%로부터 62년에는 23.8%로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앵겔 係數로 보면 生活水準이 높아진 것 같이 보이나 被服費 및 文化衛生費의 上昇은 生活壓迫이 加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勞働者와 農民의 生計費를 比較하면 勞働者側이 훨씬 높은 生活水準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62년에 勞働者의 飲食費支出構成은 45.5%이나 農民은 58.9%로서 越等하게 높은 편이다.

被服費의 支出構成은 勞働者나 農民이 다같은 각각 29.6% 및 23.8%이다.

이는 北韓의 衣生活이 單調롭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特徵이다. 文化衛生費의 차이는 勞働者側이 15.9%로 農民들의 8.1% 보다 2배나 높다. 이로써 볼 때 農民들의 生計費支出은 주로 衣食部門에 集中되어 있다고 하겠으며 勞働者側은 文化衛生費에 많은 支出이 있음을 본다.

北韓住民들의 飲食費支出內訳을 보면 國家에서 支給받는 糧穀配給基準이 定해져 있으므로 특히 主食費에 관한한 國家收買價格이 適用된다.

「朝鮮中央年鑑」 64年版에 나타난 配給基準은 勞働者 1人당 1日 800 鈔 其他 扶養家族 400 鈔 人民校生 500 鈔, 中學生 500 鈔으로 策定되어 있다. 家族數 5名(夫婦, 中學生 1名, 人民校生 1名, 幼兒 1名)을 基準으로 한 農家의 家計收支表를 만들면 다음 <表 6>과 같다.

<表 6> 家族數 5名의 農家家計收支表

<收入之部>

(1964年度)

| 內 訳 | 金 額 | 備 考 |
|--------|----------|--------------------|
| 現金所得 | 528.26 원 | |
| 共同經營收入 | 185 원 | |
| 糧穀販賣代錢 | 172 원 | (糧穀 430kg의 |
| 副業收入 | 171.26 원 | 收買價格) |
| 現物所得 | 390.45 원 | |
| 計 | 918.71 원 | 自家消費糧穀 1,370 kg |

<支出之部> (國家收買價格을 適用)

| | | |
|----------------|----------|-----------|
| ① 主食費內訳計 | 452.30 원 | |
| 分配糧穀 (1,370kg) | 390.45 | (벼, 옥수수임) |
| 搗精率 | 61.85 | |

| 내 | 내 | 金 額 |
|--------------------------|---|----------|
| ② 副食費內計 | | 146.60 원 |
| 된 장 (200 kg) | | 20 |
| 간 장 (150 kg) | | 18 |
| 소 금 (120 kg) | | 12 |
| 食油 (참기름, 콩기름 4合) | | 8 |
| 김장값 (마늘, 고추, 젓類, 배추, 무우) | | 53 |
| 漁類 (돼지 고기 15 kg) | | 30 |
| ③ 被服費內計 | | 166.40 원 |
| 男子既成服 (0.5 着) | | 17.50 |
| 女子 치마 저고리 (0.5 着) | | 12.50 |
| 中學生 學生服 1 着 | | 11 |
| 人民校生 學生服 1 着 | | 10 |
| 幼兒服 1 着 | | 4 |
| 內衣類 男子用 | | 29.40 |
| 內衣類 女子用 | | 23.40 |
| 中學生 內衣 | | 18.90 |
| 人民校生 內衣 | | 13 |
| 幼兒內衣 | | 9.50 |
| 신발代 | | 17.20 |
| ④ 住居費內計 | | 5.61 원 |
| (사발, 수저, 食칼, 솔등) | | |

| 內 訳 | 金 額 |
|--------------------|--------|
| ⑤ 光熱費(電燈料) | 6 원 |
| ⑥ 雜費內訳計 | 149.90 |
| 学用品代 | 13.20 |
| 理髮料, 沐浴, 洗濯비누, 化粧品 | 49.50 |
| 医療費 | 2 |
| 教育娛樂費 | 10.80 |
| 交通, 通信 | 20 |
| 交際費 | 11 |
| 煙草代 | 24 |
| 其 他 | 11.60 |

※ 資料: 南北韓 國民經濟生活部門比較評價(統一院 1972)

이로서 家計收支表가 例示하는 바와 같이 食料費등 영겁係數는 減少傾向을 띠우고 있는게 사실이나 그외 費用은 다 같이 上昇하고 있는 것이 特徵으로 指摘된다. 文化衛生費의 內訳이 되는 学用品代, 常備藥 및 理髮, 化粧品등 모든 生活上의 雜費用이 많이 支出되고 있는 사실은 生活向上이라기 보다는 必須的인 支出의 過多現象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北韓物價의 上昇과도 關聯이 크다. 賃金과 物價에 대해서 는 이에 관한 說明을 詳細하게 指摘하겠지만 賃金上昇보다 物價上昇이 앞질러서 결국 食料費 負擔의 減少에도 不拘하고 糧券으로 購入되지 않는 貨幣支出에 의한 諸物品의 購入費들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나. 賃金 및 所得水準의 推移

북한에서 都市와 農村의 人口構成이 急激하게 變化되면서 이에 따른 勞動階層과 農民階層의 就業構造도 크게 變遷되어 왔다. 勞動賃金の 上昇도 있었으나 그 대신 物價上昇率이 完만한 추세로 上昇되어 왔으므로 전반적으로 평가할때 북한의 勞賃水準은 基本生活를 겨우 꾸려갈 정도라 하겠다.

북한에서 人口의 增加推移를 보면 增加率이 높지 않으므로 완만하게 증가되어 왔고 59년부터 67년에 이르는 期間 在日교포北送을 통하여 合計 88,611名을 포함해도 별로 높지 않다. 1957年 북한의 人口는 9,600千名이었으나 60년에 10,717千名으로 늘고 66년에는 12,340千名을 그리고 70年 현재 14,340千名으로 現在 約 1千5百万名에 달한다. 그중에서 1970年 現在 총인구 구성에서 男子는 7,019千名으로 전체의 50.3%에 달하고 나머지 6,924千名이 女子이다.

이들 人口의 都市와 農村別 人口分布狀況을 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1953年 動亂後 人口構成은 農村이 전체의 82.3%로 圧倒的이며 都市는 불과 17.7%이었다. 1960년에 보면 農村人口는 59.4%로 急減하고 都市人口는 40.6%로 急增하였다. 다시 65년에 보면 都市人口는 47.5%이고 農村人口는 52.5%로서 都市와 農村의 格差는 축소되고 同一한 비율을 집하고 있다. 이는 人口의 都市集中의 現象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工業勞動者의 急增을 나타내 주는 歸結이다. 앞節에서 北韓 住民의 社会階層別

構成을 볼때 勞働者 및 勞務員의 구성이 57.5%에 달한 사실과 일치되는 현상이다.

<表 7> 都市와 農村의 人口構成

(單位: %)

| 年 度 | 都 市 | 農 村 |
|------|------|------|
| 1953 | 17.7 | 82.3 |
| 56 | 29.0 | 71.0 |
| 59 | 38.0 | 62.0 |
| 60 | 40.6 | 59.4 |
| 63 | 44.6 | 55.5 |
| 65 | 47.5 | 52.5 |

資料: UN 통계, 北韓概況(國際問題研究所刊)

따라서 北韓의 賃金構成은 勞働賃金體系를 위주로 정해져 있다. 自由體制社會에서 資本家와의 勞働契約에 의하여 勞動力을 時間制로 평가해서 賃金を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 北韓에서 賃金水準의 결정은 社會全體的으로 따져서 「勞働基準量」을 책정하므로, 勞働價格이 不合理하다. 附加價值에 대한 그네들이 말하는 프로레타리아트國家에의 歸屬이란 方式으로 착취를 행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個人에게 支給되는 賃金은 低賃金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北韓의 就業者數를 <表 8>에서 보면 1946년에는 불과 615千

名으로 나타났고 60년에는 4,033千名으로 그리고 65년에는 5,548千名으로 나타나있다.

<表8> 人民經濟部門別 就業者數

(單位：千名)

| | 총수 | 인민 경제 | 비예 산재 부문 | 공업 | 농촌 경제 | 운수 (체신) | 기본 건설 | 유통 | 예산계 부문 |
|------|-------|----------|----------------|-----|----------|------------|----------|-----|-----------|
| 1946 | 615 | 200 | 197 | 155 | - | - | - | - | 63 |
| 49 | 1,564 | 565 | 434 | 245 | 17 | 65 | 82 | 25 | 131 |
| 53 | 1,529 | 575 | 404 | 165 | 57 | 49 (13) | 91 | 17 | 171 |
| 56 | 2,187 | 808 | 636 | 294 | 54 | 55 (13) | 132 | 36 | 172 |
| 59 | 3,846 | 1,381 | 1,196 | 649 | 87 | 68 (14) | 195 | 85 | 185 |
| 60 | 4,033 | 1,458 | 1,285 | 699 | 97 | 72 (15) | 168 | 81 | 173 |
| 61 | 4,238 | 1,538 | 1,448 | 725 | 109 | 70 (17) | 169 | 89 | 90 |
| 63 | 3,238 | 1,872 | - | 852 | 137 | 79 (19) | 198 | 100 | - |
| 64 | 3,446 | 2,017 | - | 883 | 128 | 87 (22) | 206 | 125 | - |
| 65 | 5,548 | 2,079 | 1,969 | 929 | 136 | - (-) | 193 | 132 | 110 |

65年 現在 就業者數는 全人口의 45.1%로 보인다. 이들 중
 에서 다시 生産部門 勞働者數는 <表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에 전체의 88%로서 物量의 附加価値生産에 집중되어 있
 으며 生産部門從事者數中 直接生産에 조사하는 노동자는 89%를
 점유하고 나머지 11%가 管理職에 종사하는 間接勞働者들이다.
 따라서 直接的으로 生産部門에 종사하는 노동자수가 월등히 높다.
 이같은 현상은 自由制社會에서 서비스部門의 종사자가 많은 것과 크
 게 다르다.

<表9> 종업원 수의 구성 (평균재적으로)

(單位: %)

| | 1956년 | 1958년 | 1960년 |
|-----------------|-------|-------|-------|
| 人民經濟總勞働者數 | 100 | 100 | 100 |
| 그중 生産部分勞働者數 | 79 | 81 | 88 |
| 非生産部分勞働者數 | 21 | 19 | 12 |
| 生産部分總勞働者數 | 100 | 100 | 100 |
| 直接生産에 從事하는 勞働者數 | 82 | 83 | 89 |
| 管理 및 間接勞働者數 | 18 | 17 | 11 |

이들 就業勞働者들의 勞力富源과 利用狀態를 보면 <表10>과
 같다. 1965年末 현재로 總勞力富源은 5,973千名으로 그중 남자
 가 2,735千名 女子가 3,238千名인바 女子 勞動力이 훨씬 높은

것을 알수 있다. 이들 總勞動力은 전체 人口의 45.1%이며 그 중에서 適令 勞動力數는 전체의 86.7% 나머지는 適令未達이 30千名, 適令超過者 253千名등이 있고 適令者내에서 勞動力喪失者가 119千名이 勘案되어 있다. 또한 전체 勞動力數에서 學生勞動力의 比率도 6.8%나 된다.

<表 10> 勞力富源과 利用狀態(65年末 現在)

(單位:千名)

| | 총 계 | 남 | 여 |
|---------------|-------|-------|-------|
| 勞力富源 | 5,973 | 2,735 | 3,238 |
| 適令초과자로 일하는자 | 253 | 117 | 136 |
| 16세미만자로 일하는자 | 30 | 12 | 18 |
| 適令者중 노동능력 상실자 | 119 | 57 | 62 |
| 일하는자 | 5,322 | 2,559 | 2,763 |
| 그중 적령자 | 5,039 | 2,125 | 2,914 |
| 人口總數中 일하는者比 | 45.1% | | |
| 勞力富源中 일하는者比 | 86.7% | | |
| 勞力富源中 學生比 | 6.8% | | |
| 勞力富源中 勞力源泉 | 6.5% | | |
| 16세이상의 學生數 | 418 | 239 | 179 |
| 勞力源泉 | 397 | | |

북한에서 勞動賃金은 社會主義의 分配原則에 따라 또는 勞動의 質과 量에 따라 一律적으로 각기 규정되어 있고 賃金은 貨幣의 形態 또는 實物的形態로 支給되고 있다. 勞賃支給形態는 賃金基準額에 따라서 勞賃을 支給하는 定額勞賃과 勞動結果에 따라 별도로 支給되는 都給勞賃으로 구분된다.

북한에서 賃金水準은 1958年 1月1日 賃金을 10% 引上한바 있고 59年에도 賃金을 40% 引上한바 있어 物價上昇에 따라 勞賃을 맞추어 주려는 勞力이 있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볼때 北韓의 勞賃은 固定되어 있다. 대개 60年代 前後로 보아 物價上昇率은 年平均 4.1%씩 올라간 것으로 보아 實質賃金水準을 維持해 주려는 조치이었으나 名目賃金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指摘된다. 더구나 事務員(勞務員)의 俸給과 工業勞動 各部門間 또는 農業勞動과의 賃金格差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個人別 賃金水準은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1967年에 북한 노동자들의 階層別 賃金現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見習工(1, 2級) 30~40원, 3級工 39원, 4級工 52원, 5級工 68원, 6級工 84원, 7級熟練工 103원, 8級熟練工 109원으로 純勞動者들에 있어서도 職級에 따라 크게 差別을 두고 있다. 事務員은 47원, 記員은 52원, 部長級 55~100원, 技師長級 70~200원, 支配人級 80~250원 등으로 事務職이 工員職들 보다 높은 賃金水準을 갖는 셈이다.

이들을 當時의 物價와 對比해 보면 3級工의 賃金은 広木 11m 값에 해당되며 4級工은 食糖 25kg 값 6級工은 學生服 2벌 값이며

8級工은 羊毛織 洋服값 2분의 1에 해당되는 정도이다. 이들 賃金은 食糧配給券과는 다른 現金形態이지만 낮은 賃金水準이다.

결국 북한에서의 賃金体系는 住民生活에 있어서 家計收入으로 作用하지만 貨幣賃金이라는 자체가 衣服 신발 家庭用品을 購入하는데 있어서도 허덕이는 實態라 하겠고 그것도 都市勞動者가 農村의 農業勞動者들 보다 훨씬 向上되어 있다고 하겠다.

결국 北韓에서 小売物價와 賃金과의 相關關係를 集約해 보면 다음 <表 11> 및 <表 12> 와 같다. 小売物價指數는 1953년을 基準으로 총상품에 있어서 1965년에 54로 나타나고 있다. 賃金은 1946년을 基準으로 해서 1964년 指數는 752로 6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같은 格差는 賃金이 크게 上昇되어 裕足한 住民生活이 營爲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生活水準의 改善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이 特徵이다.

<表 11> 소 매 물 가 지 수

| 년도 \ 분류 | 총 상 품 | 식 료 품 | 식료품이외 |
|---------|-------|-------|-------|
| 1953 | 100 | 100 | 100 |
| 54 | 62 | 54 | 77 |
| 55 | 53 | 47 | 66 |
| 56 | 48 | 45 | 57 |
| 57 | 46 | 28 | 53 |
| 59 | 45 | 44 | - |
| 60 | 44 | 47 | 52 |
| 63 | 52 | | |
| 64 | 53 | | |
| 65 | 54 | | |

<表 12> 賃 金 推 移

| | 1人当貨幣賃金 (index) | | 実質賃金 (index) |
|------|--------------------|-------|-----------------|
| 1946 | 100 | (55) | - |
| 49 | 183 | (100) | 100 |
| 53 | 191 | (104) | - |
| 56 | 301 | (164) | 98 |
| 59 | - | - | 198 |
| 60 | 706 | (386) | 203 |
| 61 | - | - | - |
| 62 | 736 | (402) | 211 |
| 63 | - | | - |
| 64 | 752 | (411) | 218 |
| 65 | | | |
| 66 | | | |
| 67 | | | |
| 68 | | | |
| 69 | | | |
| 70 | 988 | (540) | (282) |

資料： 조선중앙년감
()는 통일원자료

다. 小売物価의 推移

북한에서 小売價格이라 하면 消費品에 適用되는 價格을 말한다. 이것은 製造原価, 利潤, 去來收益金 및 商業賦課金으로 形成되며 住民生活와 직결된 價格이다. 북한에서는 商品의 供給數量이나 價格決定이 政策的으로 規定되므로 消費者價格은 自然히 供給側의 操作에 의해서 決定된다. 따라서 상품의 小売價格은 必須品, 大衆品, 學用品 등 日用品類는 低廉하게 策定되어 있고 奢侈品 및 嗜好品들은 비교적 높은 價格으로 販賣된다. 또한 單一價格이 적용되는 것이 特徵이기는 하나 工產品과 農產品 등의 缺狀價格差異는 存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북한의 小売價格體系는 어디까지나 自由市場機構를 통한 價格決定과 완전히 價格形成을 달리하는 때문이다.

북한에서 都売價格이란 각 企業所間에 投入 및 產出되는 生産手段의 調達價格이며 內閣價格制定委員會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므로 공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都売價格의 高低가 小売價格에 直接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製造原価에 있어서 原価節減이 되지 않는한 小売價格은 上昇된다. 또한 小売價格에는 국가에서 稅源포착을 위한 財源으로 去來收益金を 徵收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財政收入增加와 다른 한편 個人消費의 抑制 등 두가지 效果를 동시에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小売價格은 上昇하고 있다.

이들 去來收入金은 國家豫算의 歲入에서 거의 60 ~ 65%를 充當해왔다. 課稅對象이 一般消費品으로 되어 있다. 이들 主要 小

売物品들의 稅率(去來收入金)을 摘示하면 다음과 같다.

事務用品 約 5% 家具 3~5% 도자기류 10~15% 木製家具類 15~25% 고무제품(고무신) 75~80% 과자류 5~8% 食料品 2~3% 화장품 5~8% 家庭用品 5~10% 農機具類 15~25% 酒類 20~90% 등등이다.

북한에서는 勞働者들의 貨幣勞賃 및 現物勞賃에 의한 實質賃金水準을 높여주기 위하여 이른바 「消費品의 小売價格을 系統的으로 낮춤으로서 勞働者들의 實質收入을 높이도록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같은 政策에도 불구하고 小売價格은 계속 上昇되어 왔다. 결국 小売物價格上昇率이 더욱 높기 때문에 實質賃金の 引上水準이 低下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발표한 資料에 따르면 1953년을 基準으로 한 小売物價格의 上昇率이 1960년까지 다음 <表 13>과 같다. 이에 따르면 1959年 2月 「100:1」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평균 46%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總商品指數의 이같은 추세와 더불어 食料商品이 더 많은 저하를 가져와서 60년도에 物價指數는 47로 나타나 있고 이에 비하여 非食料商品은 그보다 높은 52로 나타나 있다.

<表 13>

小売物価指数 (자유판매가격, %)

| | 1953 | 1954 | 1955 | 1956 | 1957 | 1959 | 1960 | 1963 | 1964 | 1965 |
|------------|------|------|------|------|------|------|------|------|------|------|
| 총 상 품 | 100 | 62 | 53 | 48 | 46 | 45 | 44 | 52 | 53 | 54 |
| 식료 상 품 | 100 | 54 | 47 | 45 | 28 | 44 | 47 | | | |
| 그 中 肉 類 | 100 | 57 | 57 | 57 | 41 | - | 46 | | | |
| 수 산 물 | 100 | 41 | 38 | 39 | 39 | - | 35 | | | |
| 식 용 류 | 100 | 59 | 59 | 59 | 59 | - | 58 | | | |
| 간 장 | 100 | 30 | 30 | 30 | 30 | - | 30 | | | |
| 된 장 | 100 | 41 | 41 | 41 | 41 | - | 41 | | | |
| 채 소 | 100 | 52 | 34 | 24 | 19 | - | 22 | | | |
| 과 실 | 100 | 84 | 72 | 68 | 53 | 52 | 60 | | | |
| 소 금 | 100 | 100 | 84 | 74 | 74 | - | 74 | | | |
| 주 류 | 100 | 56 | 48 | 48 | 48 | - | 48 | | | |
| 非 食 料 商 品 | 100 | 77 | 66 | 57 | 53 | - | 52 | | | |
| 綿 및 스프 직 물 | 100 | 88 | 81 | 74 | 74 | - | 74 | | | |
| 견 직 물 | 100 | 92 | 83 | 78 | 78 | - | 70 | | | |
| 내 의 류 | 100 | 87 | 79 | 76 | 76 | - | 75 | | | |
| 양 말 류 | 100 | 74 | 63 | 55 | 55 | - | 55 | | | |
| 신 발 류 | 100 | 46 | 33 | 56 | 56 | - | 49 | | | |
| 문 방 구 류 | 100 | - | - | 32 | | - | 31 | | | |

資料 : 北韓發表「조선중앙년감」1961

그러나 북한이 1953년부터 59년까지 네차례나 賃金引上을 단행한바 있는데 物価指數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賃金引上이 不可避했던 理由가 무엇인가 그 대신 休戰以後 物価引下를 세차례에 걸쳐 단행한 理由는 무엇인가 더구나 1953년 基準年度 그 자체가 動亂直後 가장 인프레가 심한 때이 있으므로 物価下落을 表示하기 위한 基準年度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物価는 그네들이 말하는 自由販賣制에 의한 價格으로서 이상의 설명에 비추어 볼때 1953년 기준 小売物価의 下落을 表示하고 있으나 賃金과의 關係에서 推定해 볼때 분명히 物価水準은 收入에 辟차는 높은 關係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1956년을 基準年度로 하여 별도로 발표된 북한의 資料(조선중앙년감)에 의해서 보면 勞動者의 實質賃金指數는 1960년에 207로 크게 불어나 있고 物価指數는 113.0으로 13% 증가로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物価體系는 自由價格의 意味를 찾아 볼수 없고 政策價格인 데다가 그들이 發表한 資料도 전혀 恣意로 表現하고 있어서 전혀 信빙성을 근거로 할수가 없다.

특히 60年代 이후 북한의 物価表를 檢討해 보면 自由販賣制의 價格이 變動되어 왔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60~65年동안 年平均 1%線의 物価上昇이 推定되어 왔고 69年以後 2%以上으로 推定될 뿐이다.

3. 品目別 推移

북한에서 商品의 生産은 國家의 전체인 管理体系 속에서 수행되므로 商品의 流通 역시 國公營 商業組織을 통해서 시행된다. 따라서 市場機構는 세가지 經路를 추적할 수 있다. 즉 國營商業組織과 協同團體의 商業 및 農業市場 등이다. 國家에서 商品生産을 計劃적으로 規定하고 이의 配分過程으로서 商業網의 형성 商品流通의 규모등을 査定하므로 결국 國營商業이 生産과 住民消費를 計劃적으로 연결시키는 機能을 담당한다. 協同團體의 商業은 어디까지나 消費協同의 機能을 담당하므로 國營商業의 補助機構로서 役割한다. 農業市場은 1958年부터 農民市場이라 規定하고 있는데 協同農民들이 副次的으로 生産한 農畜産物의 一部를 農民들이 一定한 장소에서 住民들에게 直接 매매할 수 있는 상업형태이나 副次的인 商業이다.

北韓에서 이같은 商品流通을 위해서 主要品目の 生産実績은 어떠한가 <表 14>에서 보는 바와같이 資料가 충분히 入手되어 있는 1959年의 경우와 62年의 경우만을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織物은 1,584 km에서 256千km를 內衣類는 9,307千枚에서 20,654千枚로 신발은 18,370千켄레에서 23,710 켄레로 양말은 16,922千足에서 29,430千足으로 시계는 60年에 32,900個에서 115,400個로 라디오는 8,000台에서 10,000台로 각각 增加하고 있어서 人口增加를 勘案하더라도 商品生産의 增加에 따른 流通의 증가를 찾아 볼수 있다.

<表 14 >

主要品目生産実績 및 目標

| | 織物(統) (千/cm) | 內衣類 (統) (千枚) | 신발(統) (千켤레) | 양말(統) (千足) | 지계(統) (個) | (統) 라디오(台) |
|---------|-----------------|--------------------|----------------|---------------|----------------|---------------|
| 1946 | | | 322 | | | |
| 49 | | | 5,790 | | | |
| 53 | | | 7,095 | | | |
| 56 | 77 | 2,186 | 17,532 | 10,060 | | |
| 57 | - | | | | | |
| 58 | - | | | | | |
| 59 | 158 | 9,307 | 18,370 | 16,922 | | |
| 60 | 190 | 16,080 | 17,135 | 27,410 | 32,900 | 8,000 |
| 61 | 185 | | 23,300 | 28,490 | 82,200 | |
| 62 | 256 | 20,654 | 19,920 | 29,430 | 115,400 | |
| 63 | 227 | | 23,710 | | 116,000 | 10,000 |
| 64 | 270 | | 30,000 | | | |
| 65 | 271 | | | | | |
| 66 | (270) | | | | | |
| 67 | (280) | | | | | |
| 68 | (300) | | | | | |
| 70 | (400) | | | | | |
| 7.6 年目標 | 500~600 | | 70,000 | | 70 년의 2.5 배 | |

主要品目生産実績 및 目標

| | 水産物(統) | 肉類(統) | 果物(統) | Milk (U.N) |
|-------|-------------|---------|-----------|------------|
| | (千 t) | (千 t) | (千 t) | (千 t) |
| 1946 | | | | |
| 49 | | | | |
| 53 | | | | |
| 56 | 365 | | 112 | |
| 57 | | | | |
| 58 | | | | |
| 59 | | | 169 | |
| 60 | | 90 | 274 | |
| 61 | 590 | | 285 | 5 |
| 62 | 840 | | 294 | 5 |
| 63 | 640 | | | 5 |
| 64 | 770 | | | 5 |
| 65 | 780 | | | 5 |
| 66 | (650) | | | 7 |
| 67 | (700) | | | 9 |
| 68 | (780) | | | 11 |
| 70 | 800 | | | 16 |
| 70年目標 | 1,600~1,800 | 400~500 | 800~1,000 | 60 |

※ () 内는 推定, (統) 은 資料出處가 統一院임.

(U.N) 은 Statistical yearbook of Asia and Far East.

그외 水産物의 경우도 61年 590千톤에서 65年에 780千톤으로 늘고 있다든지 果物이 59年의 169千톤에서 62년에는 294千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生産実績의 증가에 따라 商品流通額도 증가되어 왔는데 食料品과 非食料品 流通額에 관한 構成推移를 보면 다음 <表 15>와 같다.

<表 15> 商品流通額推移 (不變価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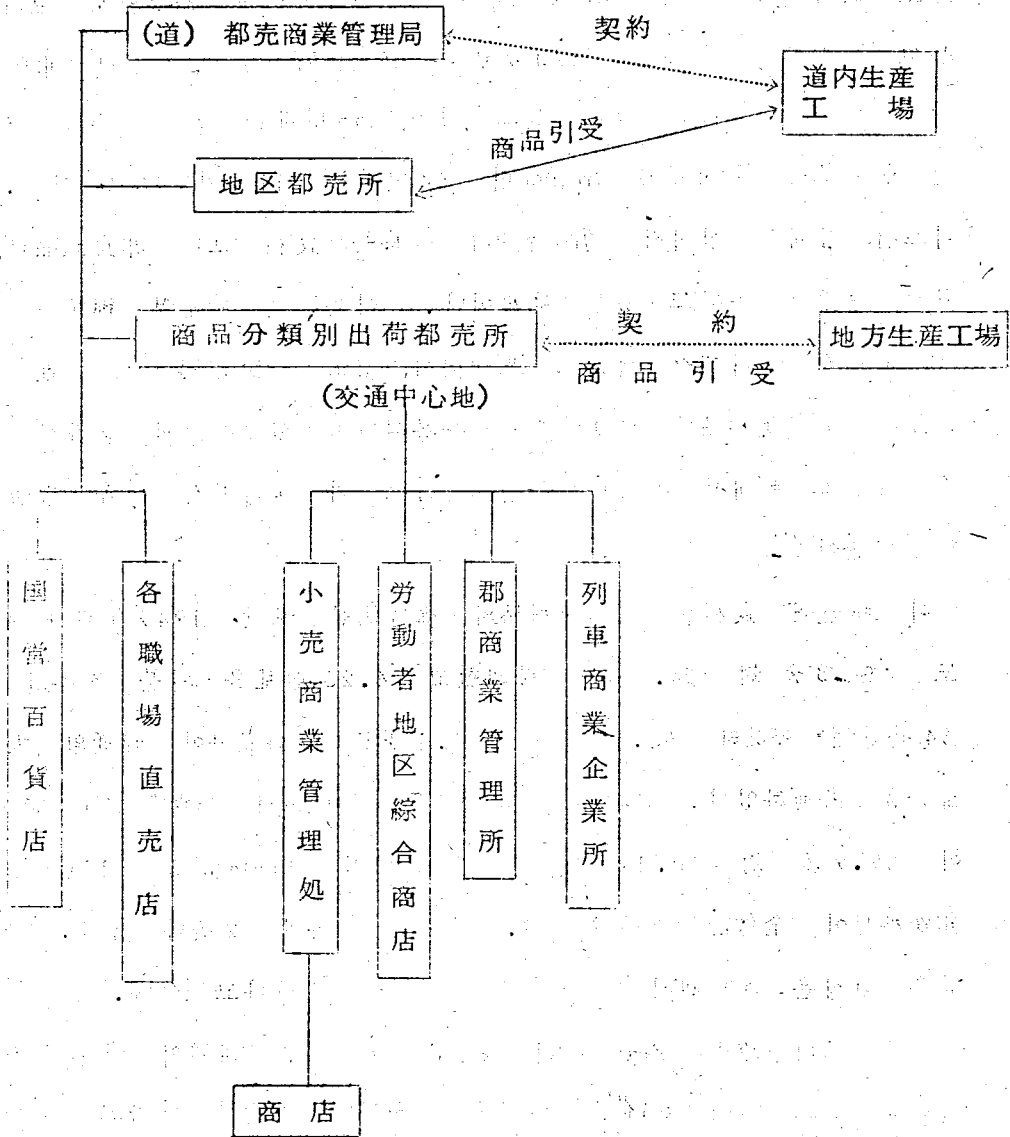
| | 食料상품 | 구 성 비 | 비식료상품 | 구 성 비 |
|------|------|--------|-------|--------|
| 1949 | 100 | 45.8 % | 100 | 54.2 % |
| 53 | 108 | 53.9 | 47 | 46.1 |
| 56 | 164 | 39.9 | 192 | 60.1 |
| 59 | 404 | 31.2 | 825 | 68.8 |
| 60 | 413 | 32.4 | 855 | 67.6 |
| 61 | 462 | 30.9 | 958 | 69.1 |
| 62 | 528 | 32.7 | - | 67.3 |
| 63 | 550 | - | 1,040 | - |
| 64 | 574 | - | 1,230 | - |

북한에서는 小売商品の 流通額을 1949年부터 1963年까지 발표
한바 있다. 이것의 推移를 살펴보면 食料商品은 1949年을 基準
으로 해서 56년에는 64% 증가하고 61년에는 362%로 크게
늘고 있으며 64년에는 474%로 大幅 늘고 있다. 한편 非食料
商品 역시 流通額은 크게 늘고 있어 56년에는 92% 늘고 61
년에는 무려 858%로 增加하며 64년에는 11배가 넘고 있다.
이로서 볼때 북한에서 商品流通의 推移는 食料品보다 非食料品이
훨씬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食料中에서 糧穀은
食糧配給券에 의해서 流通이 制約되어 있고 農民市場에서 余他
農産物 및 食料品이 副次的으로 유통되지만 별로 크게 증가할
수 없는데 비해서 非食料品들은 消費抑制가 풀리면서 계속 激增
한 때문이다.

이 때문에 食料品과 非食料品の 構成比를 보면 1949年에만 해
도 45.8% 對 54.2%에 불과했고 6.25 動亂을 치른 직후인
54년에는 오히려 53.9% 對 46.1%로 食料品만이 流通의 大
부분을 占有하였다. 그러나 56년에는 食料品과 非食料品の 構成
이 39.9% 對 60.1%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61년에는
非食料品이 全体商品流通의 69.1%를 차지하여 2배나 높다. 이
같은 현상은 계속해서 非食料品の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消費商品の 流通經路는 아래 [圖]와 같다. 내개의 경우 道内
消費品生産工場에서 出荷된 商品이 都売商品直売所에 나가고 그것이
다시 國營百貨店이나 各職場直売店을 통해서 販賣되는 것이 一般的
인 商品流通經路이다.

〔圖〕 消費商品流通経路



原則적으로 北韓의 商品流通過程은 都売過程과 小売過程으로 나누어진다. 生産工場과 販売經路가 直接 연결되는 과정이 都売商品流通인데 이들 生産工場에도 道生産工場의 것은 道都売商品管理局을 통해서 地区都売所를 거쳐 小売流通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地方生産工場의 경우는 商品分類別 出荷都売所가 交通要地에 자리잡고 있어 이를 통하여 各個 商業管理所로 小売商品流通經路를 밟는다. 小売過程에서는 國營百貨店이나 各職場直売店 이외에 商品分類別出荷都売所로 부터 나오는 商品은 小売하는 곳으로 小売商品管理處를 통해서 各商店으로 나가는 小売經路와 그의 勞働者地区綜合商店, 郡商業管理所 및 列車商業管理所 등이 있다.

따라서 消費者들에게 商品을 供給하는 곳은 小売商業所이지만 都売業所들은 商品供給量의 均衡된 調整, 商品의 在庫管理, 最終加工 및 補完 또는 生産地와 消費의 計劃的인 移動등 役割을 담당하는 機能에 불과하며 自由市場과 같은 營利追求 및 價格形成의 機能과는 크게 다르다.

북한에서 이상과 같은 商品의 都小売流通經路에 따라 配給機能을 가진 商業網의 分布를 보면 <表 16>과 같다. 總 直売商店의 數를 보면 1949년에 全國에 4千6百33個所에서 부터 1955년에는 7千4百35個所로 늘어났고 1960년에는 1万633個所로 크게 늘고 있다. 이를 다시 商店과 食堂으로 分類해 볼때 1960년의 경우 總 1万6百33個所 중에서 商店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여 9千3百54個所이고 食堂은 불과 1千2百79個所이다.

<表 16 >

商 業 網 分 布

(单 位 : 個 所)

| | 1949 | 1953 | 1954 | 1955 | 1956 | 1957 | 1959 | 1960 |
|-------------|-------|-------|-------|-------|-------|--------|--------|--------|
| 총 수 | 4,633 | 4,781 | 7,658 | 7,435 | 7,424 | 10,799 | 10,358 | 10,633 |
| 상 점 | 3,791 | 3,913 | 6,460 | 6,133 | 6,083 | 8,993 | 8,966 | 9,354 |
| 식 당 | 842 | 868 | 1,198 | 1,302 | 1,341 | 1,806 | 1,392 | 1,279 |
| 국 영 상 점 | 1,371 | 1,628 | 2,842 | 2,674 | 2,646 | 3,451 | 6,424 | 7,039 |
| 상 점 | 1,095 | 1,303 | 2,344 | 2,166 | 2,096 | 2,766 | 5,209 | 5,816 |
| 식 당 | 276 | 325 | 498 | 508 | 550 | 685 | 1,215 | 1,223 |
| 협 동 단 체 농 업 | 1,994 | 2,105 | 2,634 | 2,976 | 3,068 | 5,032 | 3,934 | 3,594 |
| 상 점 | 1,708 | 1,790 | 2,301 | 2,591 | 2,681 | 4,447 | 3,757 | 3,538 |
| 식 당 | 286 | 315 | 333 | 385 | 387 | 585 | 177 | 56 |
| 개 인 상 업 | 1,268 | 1,048 | 2,182 | 1,785 | 1,710 | 2,316 | - | - |
| 상 점 | 988 | 820 | 1,815 | 1,376 | 1,306 | 1,780 | - | - |
| 식 당 | 280 | 228 | 367 | 409 | 404 | 536 | - | - |

이들을 다시 國公有形態로 나누어 보면 國營商店은 1960년에 7千39個所이고 協同團體의 商業所는 3千594個所 그리고 個人商業은 1957년에 완전히 消滅되었지만 2千3百16個所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 北韓의 商業組織은 모두 國營 및 協同團體의 商店이 大部分이고 그의 食堂이 副次的으로 小売商의 機能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商業組織網을 통하여 去來되는 商品流通額의 規模는 어느 만큼 되는가를 찾아 보면 <表 17>과 같다. 1949년을 基準으로 볼때 小売商品流通總額으로 보아서 1955년에 增加指數가 90에 이르렀고 56年 119 그리고 60년에 이르러 318로 2倍以上 늘어났으며 64년에는 447로 3倍半이 늘어나 있다. 주로 1956 ~ 64년 기간에 消費商品이 급격한 확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북한은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통하여 勞動力의 再生産을 위한 消費패턴의 擴大를 부여한데 基因된다.

북한에서 個人商店은 1957년에 완전히 消滅되었기 때문에 國公有形態의 商業組織만이 流通經路를 담당하고 있지만 商店數에 있어서 國營이 크게 불어나고 있듯이 流通額 역시 國營商店이 훨씬 활발하다. 增加推移는 國營商店이 1949년을 基準해서 增加指數로 보아 54년에 125로서 25%증가에 불과하나 60년에는 10倍로 늘어나고 64년에는 16倍로 크게 增加되고 있다. 이에 反해서 協同團體의 商品流通額은 54년에 19% 증가를 기록하고 60년에는 1倍半을 그라고 64년에 增加指數가 213으로 오히려 57년의 322나 63년의 300에도 未達된다. 이는 個人商店을 1957

년에 완전히 쇠퇴시키면서 주로 協同團體에 移管시켰기 때문에 증가에 있어 기폭이 나타남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協同團體의 商品流通額은 商業組織의 性格上 國營商業에 비하여 크게 뒤지고 있다.

<表 17> 小売商品流通額推移(%) (不變価格)

| | 소매 상품 유통 총액 | 국 영 및 협 동 단 체 | 국 영 | 협 동 단 체 | 개인 상업 |
|------|----------------|------------------|------|---------|-------|
| 1949 | 100 | 100 | 100 | 100 | 100 |
| 51 | 29 | 36 | 35 | 37 | 23 |
| 53 | 64 | 83 | 72 | 94 | 45 |
| 54 | 94 | 125 | 131 | 119 | 64 |
| 55 | 90 | 153 | 171 | 135 | 30 |
| 56 | 119 | 205 | 231 | 180 | 36 |
| 57 | 187 | 321 | 320 | 322 | 58 |
| 60 | 318 | 642 | 10 배 | 259 | - |
| 61 | 355 | 716 | 12 배 | 274 | - |
| 63 | 390 | 799 | 13 배 | 300 | - |
| 64 | 447 | 897 | 16 배 | 213 | - |

어떻든 북한에서 小売商品の 流通은 国营 및 協同団体の 商店을 총망라해서 1960 年을 前後로 하여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눈에 뜨인다. 이는 북한에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社会主義方式의 商業組織을 정비하고 消費商品の 流通을 強化시킨 要因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이를 다시 小売商品の 所要形態別 構成에 따른 流通額別로 증가 추이를 살펴 보면 <表 18>과 같다. 전체 小売商品流通額은 1949 年에 368 百万원에 불과하였으나 57 년에는 1,009 百万원으로 10 億원을 돌파하고 63 년에는 22 億 3 千万원으로 당시의 豫算歳出額이 30 億원인데 비해 대단히 큰 規模를 나타내고 있다.

<表 18> 小売商品流通額の 所要形態別構成 (經常価格)
(單位: 百万원)

| | 小売商品 | 国营团体 流通額 | 協同团体 流通額 | 農民市場 | 個人商業 |
|------|-------|-------------|-------------|------|------|
| 1949 | 368 | 103 | 105 | - | 160 |
| 53 | 811 | 260 | 287 | - | 264 |
| 54 | 996 | 236 | 210 | - | 550 |
| 55 | 768 | 278 | 226 | - | 264 |
| 56 | 771 | 341 | 273 | - | 157 |
| 57 | 1,049 | 459 | 463 | - | 127 |
| 59 | 1,712 | 1,312 | 394 | 6 | - |
| 60 | 1,806 | 1,424 | 368 | 14 | - |
| 63 | 2,230 | 1,787 | 429 | 14 | - |

이중에서 國營商業流通額은 49년에 1千萬원에서 57년에 5億원 그리고 63년에는 무려 17億8千6百萬원으로 늘어났고 國營商業組織의 流通額은 商店의 圧倒的인 比重과 마찬가지로 圧倒的으로 높다. 協同團體의 商品流通額은 49년의 1千萬원 규모로 당시 國營과 같은 수준으로 부터 57년에도 4億6千萬원으로 상당한 증가를 보이나 63년에 이르르면 國營의 4分の 1에도 未達되는 낮은 流通規模를 보여준다. 個人商業이 49년에는 1千6百萬원으로 流通額의 규모가 가장 높았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점차 쇠퇴해서 57년에 消滅될 때에는 1千2百70萬원 밖에 去來되지 못하였다. 個人商店은 協同團體에 移管되므로써 이 당시 協同商店의 流通額은 상당히 높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뒤 증가율은 國營에 비하여 대단히 低調하다.

1959년 부터 農民市場이 消費商品의 一部를 擔當하므로써 食料品이나 農畜産物을 販賣하고 있으나 小売商品이나 商品流通 그 자체가 極히 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成果는 거두지 못하고 63年の 流通額은 겨우 1千4百萬원에 불과하다.

北韓에서는 食糧은 都小売商品流通에서 除外되고 있고 消費商品 역시 流通이 計劃的으로 調整될 뿐만 아니라 消費者의 購買力도 貨幣賃金の 増減에 左右되기 때문에 商品의 品目別 種類도 極히 미약하다. 거의 必須品 및 日用品 為主로 되어 있고 약간의 奢侈品이라야 보잘것 없는 것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價格을 策定하고 있으므로 그나마 消費抑制를 철저히 하고 있다.

<表 19>

重要品種別流通額成長推移(不變價格)

(單位：%)

| | 1949 | 1953 | 1956 | 1959 | 1960 | 1961 | 1962 | 1963 | 1964 |
|---------|------|------|------|------|------|------|------|--------|--------|
| 食料商品 | 100 | 108 | 664 | 404 | 413 | 462 | 528 | 550 | 574 |
| 양곡 | 100 | 176 | 209 | 328 | 354 | 313 | 343 | - | - |
| 육류 | 100 | - | 169 | 11倍 | 11倍 | 11倍 | 13倍 | 10倍 | 11倍 |
| 수산물 | 100 | 9 | 74 | 130 | 138 | 186 | 201 | 19.9 # | 20 # |
| 식용유 | 100 | 64 | 113 | 510 | 374 | 893 | 14倍 | 12.2 # | 12.9 # |
| 소채 | 100 | 72 | 519 | 21倍 | 28倍 | 38倍 | 40 # | 48.6 # | 39.2 # |
| 과실 | 100 | - | 517 | 16 # | 17 # | 12 # | - | 20.5 # | 14 # |
| 非食料商品 | 100 | 47 | 192 | 825 | 855 | 958 | - | 10.4 # | 12.3 # |
| 綿 및 스프織 | 100 | 260 | 995 | 21倍 | 22倍 | 16倍 | - | 13 # | 10 # |
| 견직물 | 100 | 18 | 149 | 676 | 601 | 677 | - | 678 | 752 |
| 모직물 | 100 | 32 | 105 | 805 | 641 | 518 | - | 302 | 380 |
| 기성복 | 100 | - | 491 | 41倍 | 42倍 | 51倍 | 60倍 | 53.2倍 | 66.6倍 |
| 내의류 | 100 | 81 | 349 | 15 # | 17 # | 22 # | 24 # | 25.4 # | 29.7 # |
| 양말류 | 100 | 47 | 161 | 392 | 467 | - | 622 | 7.1 # | 860 |
| 신발류 | 100 | 102 | 164 | 368 | 368 | 423 | 422 | 456 | 555 |

重要品目別 商品流通推移를 보면 <表 19>와 같다. 品目は 크게 나누어 食料品類와 非食料品으로 나눌 수 있다. 食料品에서는 割當된 品目으로 糧穀이 있고 그의 自由販売되는 것으로 肉類, 水産物, 食用油, 채소, 과실 등을 들수 있는데 食料商品은 1949년을 기준해서 60년에 3倍 64년에는 4倍半이 증가된 셈이고 특히 品目別로 두드러진 증가는 肉類가 같은 기간에 11倍, 水産物이 20倍 채소 39倍 과실 14倍, 그리고 食用類가 13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非食料品類는 重要品目이 衣類 및 織物등인데 전체의 증가 狀況은 1949년을 기준해서 60년에 7倍 64년에 12倍의 增加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增加率이 큰 順位로 보면 既成服이 同期間에 가장 큰 증가를 보여 64년에는 66倍로 가장 많고 內衣類가 30倍 그의 양말류 7倍, 絹織物 6倍, 신발 5倍, 모직물 3倍, 그리고 綿 및 스프織物은 61년에 16倍를 記錄하고 있으나 64년에는 49년비 10倍의 증가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다른 織物類에 의해서 代替되고 있으므로 比重이 점차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商品流通過程은 商品의 供給과 消費가 計劃的으로 遂行되는 社会主義的 商業組織網을 확보하고 生産手段은 一切의 國家管理下에 두고 消費資料만을 流通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住民生活에 대한 消費制約이 극심한 実情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住民들은 日常生活에 必要한 物品 一切를 小売商을 통하여 購入하고 이를 消費하므로 商品流通組織이 制約을 받

고 있는 狀況下에서는 商業이 지닌 本來의 意味 즉 消費者에게 奉仕하는 機能은 抹殺되어 있는 때문이다.

가. 主要 食·衣生活品目的 消費

北韓에서 1人當 GNP를 資料에 의해서 抽出해 보면 다음 <表 29>와 같이 1946년 기준 49년에 101.6원 動亂後 53년에는 78.7원으로 떨어졌다가 56년에 150.2원 60년에는 306원 인바 增加指數는 608로 5倍以上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비해서 1人當 양곡 消費量을 보면 1946년에는 204kg으로 低調하였으나 59년에는 327kg으로 늘고 특히 61년에서 63년 기간에 異例的인 쌀 및 옥수수등 풍작으로 가장 높은 448kg까지 올랐다고 64년에는 다시 373kg으로 떨어져 있다. 따라서 1人當 GNP額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重工業生産에 치우친 탓으로 住民生活에 直接的으로 所要되는 양곡消費量은 별로 늘지 않고 있다. 이는 農業生産이 항상 脆弱한 狀態로 위축되어 왔기 때문에 貨幣賃金を 높여 준다해도 食糧配給이 絶對量 不足으로 인하여 制限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46년에 이미 土地改革을 실시하고 그뒤 계속해서 社會主義的 協同化에 의해서 農業生産體制를 확립하고 食糧難을 解決하려 하였다. 食糧의 流通을 嚴格하게 통제하였으며 1959년에는 糧券制를 확립하여 糧券의 發給은 職場의 經理部에서 담당케 하고 出張이나 買食에 있어서도 糧券과 代金を 同時に 支払하도록 規制하고 있다. 이같은 食糧配給制는 1人當 食糧消費를 완전히 統制하기에 이르고 있다.

<表 20>

一人当 GNP 및 알곡消費推移

(單位: 원, kg)

| | 46 | 53 | 56 | 59 | 60 | 62 | 64 |
|-------------|------|------|-------|-------|-------|-------|-------|
| 一人当 GNP | 50.5 | 78.7 | 150.2 | 298.1 | 306.8 | 364.3 | 415.3 |
| 一人当 알곡消費 | 204 | - | - | 327 | 355 | 448 | 373 |

註: 61 ~ 63년 간 풍작으로 알곡소비는 增加됨.

一人当 食糧配給基準을 보면 抗内重労働者 900g, 有害労働者 800g, 事務員 및 大学生(19歲以上) 700g 人民·中学 및 技術学生(19歲까지) 500g 扶養家族(2歲以下 60歲以上) 400g 農民 400g 農民扶養家族 300 ~ 100kg까지로 各各 各급에 따라 配給基準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같은 食糧消費狀況에 따라 農家当 現物·現金收入을 비교해 보면 <表 21>과 같이 1958년에 알곡 1,800kg 여기에 감자류 501kg 그리고 現金이 203원이 收入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1961년에는 알곡 2,100kg에 감자류 700kg 그리고 現金이 300원 收入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개 一人当 年間 간장消費는 約 10ℓ 된장 消費는 約 10kg으로 制限되어 있다.

<表 21>

北韓의 農家當 現物・現金收入

| | 1954 | 1955 | 1958 | 1960 | 1961 | 1963 | 1969 |
|----------|------|-------|-------|-------|-------|-------|---------|
| 알 곡 kg | 746 | 1,250 | 1,826 | 2,100 | 2,700 | 2,848 | (3,780) |
| 감 자 類 kg | | 193 | 501 | 540 | 700 | - | - |
| 現 金 圓 | 55 | 56 | 203 | 300 | 400 | 489 | (600) |

자료 : 조선중앙년감

北韓에서 衣類消費를 보면 住民 一人當 織物消費量은 7.5 m에서 15 m이내이며 이들 衣生活 역시 選擇에 따른 割當制로 制限되어 있다. 輕工業은 重工業 위주의 政策때문에, 항상 制約을 받아 왔는데 輕工業 中에서는 纖維, 織物工業이 가장 중점적인 開發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內容을 충실치 못하다. 1960년 현재 內衣類의 生産은 20,654千枚, 양말은 29,428千足, 靴類 30,000千足 그리고 織物이 256,000千m 등으로 나타나 있다.

一人當 織物生産量은 17.5 m로 되어 充足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品質이 낮고 品種도 單調롭고 더구나 價格이 높아 消費는 抑制되고 있다. 毛織같은 경우 1m當 100-원인데 여기에 月收 70원짜리 勞働者들은 購入이 어려운 狀態이다. 北韓의 衣生活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 하겠다.

4. 教育, 保健 및 厚生

北韓에서는 이미 1946년부터 教育制度를 社会主義에 맞추어 바꾸고 教育内容도 전면적으로 改編하였다. 이 당시 教育施設은 人民學校가 2,482校에 敎員數 18,505名, 初級中學校 217校에 敎員數 2,041名 中等專門學校 28校에 敎員數 402名 그리고 大學이 4校에서 141名으로 되어 있다.

教育内容은 勞動階級을 위한 敎養과 學習을 근본적으로 고취시키는데 主目的을 두고 「일하면서 배우자」라는 구호를 내세워 學生들에 대한 勞力動員이 強調되고 있다. 특히 1960年代 이후에 와서는 教育体系를 보다 철저히 다지는 施策으로 學校의 教育에 대한 義務性, 非宗教性, 國家性 등을 강조하고 그의 男女平等, 學校와 社會와의 간밀한 協助 등을 내세웠다. 이것은 生産的 教育, 技術教育 등을 토대로 思想教育을 치중하는 内容들이다.

1946년 이후 1963년 期間에 北韓 學生數의 變動推移는 다음 <表 22>와 같다. 1963년에 人民 및 初級中學校의 學生數는 1百 83萬 3千名으로 되어 있고 이 수자는 人口 1千名에 71.4名에 해당하는 셈이며 專門, 高等 및 大學生數는 73萬 3千名으로 人口 1千名에 28.6名꼴로 되어 全体 學生數는 2百 56萬 6千名으로 發表되고 있다.

<表 22>

학 생 수

| | 人 民 및 초급중 학교 | 人口千名当 | 전문·고등 대 학 | 人口千名当 | 計 |
|------|------------------|-------|--------------|-------|---------|
| 1946 | 1,256 千名 | 97.4 | 33 千名 | 2.6 | 1,289 |
| 49 | 1,827 | 92.8 | 142 | 7.2 | 1,969 |
| 53 | 1,683 | 94.8 | 93 | 5.2 | 1,776 |
| 56 | 1,953 | 92.7 | 406 | 7.3 | 2,107 |
| 60 | 1,988 | 78.6 | 542 | 21.4 | 2,530 |
| 63 | 1,833 | 71.4 | 733 | 28.6 | 2,566 |
| 64 | | | | | 2,468 |
| 65 | | | | | - |
| 66 | | | | | 約 2,600 |
| 67 | | | | | - |
| 68 | | | | | 約 3,000 |

이에 따르면 人民 및 初級中學校의 學生은 人口比로 볼때 1953년에 人口 1千名当 94.8名에 해당되는 때에 가장 惠沢의 범위가 컸다고 말할 수 있고 專門, 高等 및 大學生數는 1960년 이후에 갑자기 擴大되었다. 이같은 要因은 北韓이 1960년 이후 教育制度를 改編해서 高級中學校를 폐지하고 技術學校 및 高等技術學校體系를 新設하므로써 技術教育을 重點的으로 시행하고 이에 따라 學生數가 크게 늘어난데 기인된다.

북한에서 医療施設을 보면 病院수가 1946년에 85個에 불과하였으나 60년에는 447個所로 크게 늘어나 있다. 醫師數 역시 46년에 비해서 10倍의 증가를 이루고 있다.

醫師數의 增加推移는 <表 23>과 같거니와 1946년에 1,009名으로 人口 千名當 0.1名꼴에 불과하였으나 56년에는 5,650名으로 人口 千名當 0.4名꼴이었고 60년에는 11,919名으로 1.1名꼴이 되었고 64년에는 2萬2千7百6名으로 人口千名當 1.9名꼴로서 46년에 비해서 約 20倍의 增加를 나타내고 있다.

60년대 이후 6個年計劃期間에 保健政策을 강화해서 藥品과 醫療器具의 生産擴大 및 品質向上을 試圖하였다. 그외 醫師들의 區域割當制를 실시하고 漢醫學의 보급을 꾀고 醫療體系를 綜合病院化라는 作業을 꾀왔다.

그러나 醫療技術의 낮은 水準과 醫療施設의 脆弱 및 醫療서비스의 不備로 비록 無療惠沢이라고는 하지만 住民들이 받는 惠沢은 아주 미약한 實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면에서 教育이나 醫療에 관한 國家的支援으로서 社會文化施策費는 어떠한가 <表 24>에서 보는바와 같이 1954년에 歲出總額 7億2千9百萬圓에 대해서 社會文化施策費는 前年對比 歲出이 47% 增加인데 이에 대한 社會文化施策費는 13.1%의 比重을 占有하고 있었다. 59년부터 64년까지의 期間에는 歲出對比 社會文化施策費는 20%線을 넘어서 최고 60년에는 24.6%에까지 달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歳出總額의 年間 30%以上 増加에 비추어 본다면 그리 높은 比重은 아니었다.

이같은 社会文化施策費의 完만하면서도 높은 比重은 그만큼 60년 前後에 있어서 北韓의 教育, 医療 및 社会保障施設을 扩充하려고 努力한 때로 看做된다.

그의 文化施設로서 劇場, 映画館 및 図書館의 수를 보면 다음 <表 25>와 같다.

<表 23> 医 師 数

| | 医 師 数 | 人口千名当 |
|------|---------|-------|
| 1946 | 1,009 名 | 0.1 |
| 49 | 2,131 | 0.2 |
| 53 | 3,009 | 0.4 |
| 56 | 5,650 | 0.6 |
| 59 | 9,034 | 0.9 |
| 60 | 11,919 | 1.1 |
| 61 | 14,172 | 1.2 |
| 62 | 15,874 | 1.4 |
| 63 | 18,241 | 1.6 |
| 64 | 22,706 | 1.9 |

< 表 24 >

歳出对比社会文化施策費

| | 세출총액 | index 53=100 | 사회문화 시책비 | 사회문화 시책비 / 세출 총액 |
|------|--------------|-----------------|-------------|------------------------|
| 1953 | 百万원 496.0 | 100 | 百万원 | % |
| 54 | 729.6 | 147 | 95.4 | 13.1 |
| 56 | 956.0 | 193 | | |
| 57 | 1,022.4 | 206 | | |
| 58 | 1,183.0 | 239 | | |
| 59 | 1,649.6 | 333 | 382.3 | 23.2 |
| 60 | 1,967.9 | 397 | 484.1 | 24.6 |
| 61 | 2,338.0 | 471 | 497.8 | 21.3 |
| 62 | 2,728.8 | 550 | 617.4 | 22.6 |
| 63 | 3,028.2 | 611 | 645.0 | 21.3 |
| 64 | 3,418.2 | 689 | 696.0 | 20.4 |
| 65 | 3,476.1 | 701 | 615.3 | 17.7 |
| 66 | 3,571.4 | 720 | 614.3 | 17.2 |
| 67 | 3,948.2 | 796 | 690.9 | 17.5 |
| 68 | 4,812.9 | 970 | 827.8 | 17.2 |
| 69 | 5,048.6 | 1,018 | 994.6 | 19.7 |
| 70 | 6,002.7 | 1,210 | 1,020.5 | 17.0 |
| 71 | 7,277.3 | 1,467 | 1,229.0 | 16.9 |

<表25> 文 化 施 設

(單位：個)

| | 劇 場 | 映 画 館 | 圖 書 館 | 博 物 館 |
|------|-----|-------|-------|-------|
| 1946 | 2 | 81 | 35 | 2 |
| 49 | 11 | 110 | 106 | 6 |
| 53 | 11 | 112 | 181 | 9 |
| 56 | 13 | 248 | 185 | 13 |
| 60 | 15 | 402 | 185 | 18 |
| 63 | 21 | 561 | 228 | 22 |

資料：조선중앙년감, 1964

이들 文化施設들은 오직 북한의 厚生에 寄與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劇場의 경우 46년 2 個所에서 53년 11 個所 60년 15 個所 63년에는 21 個所로 늘고 있어 그런데로 증가되고 있는 셈이나 대단히 적은 形편이다. 映画館 역시 53년에 112 個所 60년에 402 個所 63년 561 個所로 꽤 많은 편인데 이것은 社会体制上 娛樂거리가 되는 동시에 国家理念은 동시에 注入시키고 宣傳하는 면에서 크게 장려되어 있다고 하겠다. 북한에서 映画는 1964 年부터 職場 映画館, 移動映写室을 만드므로서 강력히 장려하고 있다.

厚生施設로서 旅館, 食堂, 沐浴湯, 理髮所등을 들수 있으나 이들 便宜施設物들은 住民生活의 特性에 비추어 볼때 크게 活用되지도

못하고 利用度가 지극히 낮다. 그 理由는 作業 및 教養時間에
쫓기어 余裕가 없고 賃金이 이들 厚生施設을 活用할만큼 余裕가
없는 점에도 기인한다. 또는 이들 厚生便宜施設들이 能率있는 서
비스를 하고 있지 못한 점이라든가 不自由스런 點들이 다같이
指摘될 수 있을 것이다.

III. 最近 北韓의 消費生活

1970년에 마친 北韓의 7個年 經濟計劃은 1961년부터 시작해서 3個年을 延長한 끝에 10년 걸려 끝마쳤다. 1971년 부터 6個年 經濟計劃이 76년도를 目標年度로 設定하고 현재 진행 중이다.

北韓住民의 消費生活은 社會主義의 經濟體制 속에 완전히 묶여 있기 때문에 生産手段生産部門의 重工業建設에만 치중되는 나머지 消費品의 生産 그 자체가 制約되어 있고 따라서 消費選擇의 餘地를 附與하지 않고 있다.

7個年 經濟計劃의 10년 期間에는 初期段階에 異例적으로 北韓住民의 消費生活을 높이려는 計劃과 試圖가 있었으나 64년 이후 이같은 計劃마저 완전히 變質되고 말았다.

消費水準을 向上 시키려는 試圖는 무엇보다도 첫째 韓國과의 對決에서 최소한도의 生活水準을 競爭해 보려는 點

둘째 勞動生産性의 高度化를 위해서 必要한 勞動力의 再生産을 위한 衣,食,住生活의 改善努力 세째 社會主義의 計劃經濟가 지닌 經濟計劃上의 矛盾과 浪費를 막기 위해서는 다소의 市場經濟의 原理를 導入해서 消費需要의 誘因力을 必要로 한다는 點 등이 指摘된다.

그러나 1964년을 고비로 消費生活의 向上을 위한 試圖가 變質된 理由를 들면 첫째 中·蘇紛爭, 및 中·印戰爭에 따른 外援의

激減으로 經濟開發을 위한 投資財源의 調達이 如意치 못한點

둘째 韓國에서 派越 및 1次五個年計劃의 成功에 따른 發展의 危脅으로 軍需生産을 強化하지 않을수 없는 點 세계 經濟計劃 內部에서의 連鎖關係의 矛盾과 이에 結들인 「国防·經濟建設의 併進」에 의한 工業各部門間的 不均衡深化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60年代 이후 7個年計劃의 墜跌은 当初 目標로 내세웠던 「人民經濟生活의 向上」이란 課題가 좌절되기에 이르렀고 70년대 전후의 住民生活相은 오히려 모든 部面에서 停滯相을 免치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특히 住民의 消費生活에 비추어 本 衣,食,住의 問題는 国防經濟建設 또는 軍需重工業에 치우친 나머지 度外視되고 있는 狀況이다.

1. 食生活

7個年計劃에서 내세운 「輕工業 및 農業의 急速한 發展과 住民生活의 改善에 注力한다」라는 課題는 이部門의 生産計劃의 墜跌로 지지부진한 셈이다.

北韓住民의 主食은 쌀과 옥수수 이다. 이들 食糧生産과 一人當 알곡消費에 관해서는 <表 26>과 같다. 1946년 알곡·人當 消費量은 204Kg으로 대단히 저조한 편이었으나 59년에 이르러 327 Kg으로 增加하였고 61년에는 최고로 474Kg에 까지 달하였다. 이때 63년까지의 기간은 「住民 生活의 改善」을 내세워

<表 26> Food Grain Availability (감자, 고구마 불포함)

| | 알곡생산 ① (북한 발표) | 수출② (U.N통 계) | 수입③ (U.N 통계) | ①-② +③ | 人 口 | 1 人 当 알곡소비 | 쌀생산량 (U.N 통계) | 옥수수생산량 (U.N통 계) |
|-----------|----------------------|--------------------|--------------------|-----------|--------|---------------|---------------------|-----------------------|
| | | | | 千 t | 千名 | | 千 t | |
| 1946 | 1,890千t | | | 1,890 | 9,257 | 204kg | | |
| 1959 | 3,400 | | | 3,400 | 10,392 | 327 | 1,500 | 1,000千t |
| 1960 | 3,800 | | | 3,800 | 10,717 | 355 | 1,535 | 950 |
| 1961 | 4,830 | 25千t | 419千t | 5,224 | 11,029 | 474 | 1,996 | 1,910 |
| 1962 | 5,000 | 13 | 94 | 5,081 | 11,341 | 448 | 2,420 | 1,900 |
| 1963 | 4,900 | 37 | 96 | 4,959 | 11,702 | 424 | 2,960 | 1,600 |
| 1964 | 4,500 | 24 | 51 | 4,473 | 11,978 | 373 | 2,500 | 1,600 |
| 1965 | (4,530) | 44 | 127 | 4,613 | 11,988 | 385 | 2,500 | 1,640 |
| 1966 | (4,400) | 90 | 425 | 4,735 | 12,340 | 384 | 2,700 | 1,600 |
| 1967 | (5,110) | 132 | 377 | 5,355 | 12,933 | 414 | 2,350 | 1,500 |
| 1968 | (5,870) | 65 | 149 | 5,754 | 13,305 | 433 | 2,450 | 1,500 |
| 1969 | - | 114 | 226 | - | 13,509 | - | 2,700 | 1,800 |
| 1970 | 5,000 | 89 | 325 | 5,236 | 13,943 | 376 | 2,800 | 1,800 |
| 76년 목표 | 7,000~ 7,500 | | | | | | | |

※ 61.62.63年の 異例的 증가는 쌀 및 옥수수 생산의 풍작
에 기인한 것임.

한창 主力하던 때이며 동시에 계속되는 豊作으로 알곡消費가 厚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64년 이후 一人當消費量은 減少되어 373 kg등이고 70년에도 376 kg으로 推定된다. 쌀生産量은 현재 24萬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60년의 1,500萬石에 비해 불배 상당한 増産을 이룩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人口增加率이 높고 計劃目標에도 未達하는 食糧生産(쌀, 옥수수, 감자, 고구마등)으로 一人當 알곡 消費量이 停滯되어 있다.

60年代 10년간 북한의 經濟成長率이 8.3%인데 비해 農業部門은 5.4%로 低調한 편이며 특히 65년 이후 不利한 氣象條件으로 年平均 成長率은 3.5% 미만이라 記錄된다.

북한 住民들의 食生活에 관한 資料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UN 통계에서 이를 抽出해서 간단히 보면 다음 <表 27>과 같다. 특징적인것은 勞動力을 確保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營養은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칼로리 面에서는 이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營養面에서 一人當 標準섭취량은 쌀 300g雜穀 75g 밀가루 150g 그리고 肉類 生鮮 및 계란이 합해서 120g 된장, 30g 콩류 20g 등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칼로리量으로 볼때에는 단백질이 불과 70g으로 낮다는 점이 지적되며 1日 칼로리 섭취량에서 男子 2,300~2,900 칼로리 女子 1,800~2,200 칼로리이며 兒童들은 2,500~3,600 칼로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있다. 따라서 칼로리를 충족시켜 주는 대신 단백질은 부족한 셈이다.

一人當營養食

<表 27 > (1964 - 1966 平均)

| | | 1日섭취량 | 1日카로리 |
|---|----|-------|-------|
| 總 | 計 | | 2,270 |
| 穀 | 類 | 469 | 1,662 |
| 감 | 자류 | 211 | 161 |
| 사 | 탕무 | 5 | 19 |
| 콩 | 類 | 75 | 255 |
| 채 | 소 | 244 | 54 |
| 과 | 실 | 28 | 14 |
| 肉 | 類 | 21 | 57 |
| 계 | 란 | 8 | 12 |
| 생 | 선 | 20 | 24 |
| 乳 | 類 | 1 | 1 |
| 참 | 기름 | 1 | 10 |

資料：U.N 통계

최근에 북한에서는 技術革命을 내세우고 婦女子들을 家庭勞動으로부터 解散시킨다는 방면으로 밥工場을 건설하고 된장, 간장의 工場 制生産을 도모하고 있다.

2. 衣類 및 靴類의 現狀

北韓에서 衣服은 單調로울 뿐만 아니라 豊요하지를 못하다. 經濟建設이 重工業 위주로 되어 있어 輕工業이 不振한 理由도 있겠으나 그런나름 대로는 纖維部門은 主力하고 있는데도 그렇다. 대개 織物類는 石炭化学 및 石灰石에서 매년 비닐론이나 이들 原料에 의한 合成纖維이므로 品質이 石油化学에서 나온 것에 비교도 안될만큼 뒤진다.

신발은 대개 運動靴나 가죽구두가 주로 되어 있는데 天然고무의 不足으로 合成고무가 사용되고 있다.

公式發表된 資料에 의하면 1962년에 內衣類生産量이 2千65萬枚로 양말이 2千9百40萬枚 靴類 3千萬足 등으로 나와 있으나 數量을 표시한데 불과하다.

이들 衣類나 靴類에 대한 生産推移는 <表 28>과 같다.

비닐론 및 化成계통의 織物生産은 70년에 350千km 이상을 짜낸것으로 평가되며 6個年 計劃의 目標은 이들을 500~600km로 増産하려고 計劃하고 있다. 靴類는 59년에만 해도 18,370千켤레에서 64년에는 30百萬켤레를 生産하고 있으나 현재는 正確치 않고 6個年計劃의 目標은 70百萬 켈레로 되어 있다.

北韓에서는 衣類가 需要量에 不足하므로 每人當 年間消費할수 있는 織物量을 규정해 왔다. 衣類購入券이 配定한 量에 따라서 이들 衣類에 관한 日用品을 사들일수 있다. 住民 1人當 年間 織物消費量은 職場人인 경우 7.5 m에서 10 m 이내이고 學生과 扶

<表 28 >

衣類 및 靴類 生産

| | (統) 織物 (千km) | (統) 內衣類 (千枚) | (統) 신발 (千켤레) | (統) 양말 (千足) |
|--------|-----------------|-----------------|-----------------|----------------|
| 1946 | | | 322 | |
| 1949 | | | 5,790 | |
| 1953 | | | 7,095 | |
| 1956 | 77 | 2,186 | 17,532 | 10,060 |
| 1957 | - | | | |
| 1958 | | | | |
| 1959 | 158 | 9,307 | 18,370 | 16,922 |
| 1960 | 190 | 16,080 | 17,135 | 27,410 |
| 1961 | 185 | | 23,300 | 28,490 |
| 1962 | 256 | 20,654 | 19,920 | 29,430 |
| 1963 | 227 | | 23,710 | |
| 1964 | 270 | | 30,000 | |
| 1965 | 271 | | | |
| 1966 | (270) | | | |
| 1967 | (280) | | | |
| 1968 | (300) | | | |
| 1970 | (400) | | | |
| 7.6 計劃 | 500 ~ 600 | | 70,000 | |

() 內는 不確實한 수치임.

養家族은 차이가 있다. 또한 衣類購入券 内에서 內衣와 양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같이 購入하는 경우에는 作業服 1벌 런닝샤츠 2점, 팬츠 2점 양말 3켤레 및 秋冬服 1벌 정도로 配定된다.

그의 輸入衣類品을 購入할수 있으나 高所得者에게만 適用된다고 말 할 수 있다.

3. 住 宅

社会主義体制에 맞추어 生活構造를 造成해온 北韓은 住宅難의 解決도 都市에는 아파트 農村에는 聯立住宅 형태로 集團化를 實施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動亂後 住宅難에 허덕여 왔으므로 그동안 많은 住宅을 建設하였으나 不足率은 60년에 20.6% 65년에는 24%로 알려졌다.

住宅建設狀況은 <表 29>와 같거니와 1954년에 4,279千㎡ 60년에 2,687千㎡ 64년에는 2,446千㎡등 많은 面積의 住宅 建設狀況이 눈에 띈다.

이같은 住宅이라야 都市에는 高層아파아트를 農村에는 「農村文化住宅」이라해서 建設 하였으나 아파아트는 대개 6~10坪의 小規模이고 5~8層 建物에 收容된다. 따라서 住宅構造로 보아서 房 1間, 부엌 1間, 創庫 1個가 割當된 것이 5人家族의 표준형이다.

農村의 住宅은 이른바 文化住宅이라 하나 集團聯立住宅으로 50戶 以內를 한데 모으는 형태이며 1世帶當 房 2 부엌 1 創庫 1등 小規模이다. 이들 모든 住宅은 組立式으로 되어 있어 1965年 현

<表 29.>

住 宅

| | 新住宅建設面積 |
|------|----------|
| 1954 | 4,279 千㎡ |
| 1955 | 2,932 |
| 1956 | 3,067 |
| 1957 | 2,946 |
| 1958 | |
| 1959 | 2,337 |
| 1960 | 2,687 |
| 1961 | 2,196 |
| 1962 | 6,129 |
| 1963 | 2,637 |
| 1964 | |
| 1965 | |

재 전체 住宅建立의 79.5%가 組立式이다.

都市의 住宅은 1~特号에 이르는 5가지 区分이 있는데 1号는 一般労働者 및 事務員이 사는 집으로 房1間 부엌 半間 등이다.

2号는 作業班長이나 道級機關 指道員 工場의 課長級, 市郡級 機關 部長初等 中學校教師등이 入住하며 房1間半, 부엌1間이다. 3号住宅은 企業所의 部長 初中校 校長, 大學의 副教授 中央級機關의 指

導員, 道級機關의 副部長등이 入住하며 房 2間·부엌 1間 創庫 半間으로 되어 있다. 4号住宅은 企業所, 党 및 行政責任者, 大學教授, 人民배우 內閣의 局長級이 入住하는 住宅으로 온돌房 2間, 마루房 1間 創庫半間, 목욕탕 번소, 등 構造가 되어 있다. 特号住宅은 獨立住宅으로 定員이 있고 副相級, 相級, 副首相級이 入住하는데 이들 역시 職級에 따라 建坪 垡地面積에 差等이 있다.

都市와 農村的 住宅構成比를 보면 <表 30>과 같다. 都市住宅이 靑선 늘어나고 있는 現象이 보인다. 1945~1956년에 都市

<表 30> 都市 및 農村住宅 構成比

| | 1945~56 | 51~60 | 60 | 63 | 64 |
|------|---------|-------|------|------|------|
| 住宅總計 | 100 | 100 | 100 | 100 | 100 |
| 都市 | 46 | 49.1 | 55.1 | 44.8 | 57.8 |
| 農村 | 54 | 50.9 | 44.9 | 55.2 | 42.2 |

와 農村的 住宅構成比는 46對 54 57년~60년사이의 比率은 55.1對 44.9로 都市가 農村을 앞선다.

64년에는 都市住宅이 57.8%이고 農村住宅이 42.2%로 현저한 差異를 나타낸다.

IV. 外國과의 比較

1. 韓國과의 比較

南北韓의 社會 및 經濟構造上的의 모든 體制는 너무나 相異하기 때문에 經濟力의 比較가 皮相의 일수 밖에 없고 더구나 南北韓의 消費構造를 比較하는 일은 至難한 課題이다.

이곳에서는 南北韓 住民들의 消費生活에 관한 指標를 中心으로 相互比較를 試圖해 보기로 한다.

韓國에서 經濟開發의 基本政策課題는 國民生活水準의 向上에 着目되고 따라서 모든 工業開發이 消費財 위주로 後方 連鎖效果를 期待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經濟開發의 基本目標가 重工業優先에 있고 그것도 軍需工業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住民들의 消費페턴은 完全하게 制限되어 있으며 消費者財의 欠乏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의 消費水準의 差異를 物量面에서 觀察할 때에 北韓의 消費生活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事實이다. 다만 北韓은 軍需重工業을 土臺로 언젠가는 輕工業方向으로 移行될것을 期待하는 면에서 後方連鎖效果를 指向하고 있다고 하겠다.

먼저 南北韓 經濟의 諸指標를 土臺로 한 比較를 해보면 다음 <表 31>과 같이 차이가 크다 물론 人口水準으로 보아서 韓國이 3千1百萬名에 비해서 北韓이 15百萬名에 불과하여 2倍의 規模를 갖추어야 하는 점도 있겠으나 GNP規模만 해도 韓國의 60억 弗에 비해 30億弗 밖에 안된다.

<表 31>

南北韓의 主要經濟指標 (1969)

| | 南 北 | 北 韓 | 1970年이 후밝혀진 北韓의 目標數值 |
|------------------|-----------|----------|-------------------------|
| ① GNP | 60.7억\$ | 29.5억\$ | |
| ② 人 口 | 3,114 만명 | 1,405 만명 | |
| ③ 1人당 GNP | 223 \$ | 220 \$ | |
| ④ 經濟成長率(67~69平均) | 12.6 % | 8.6 % | 10.3% (71~6년 年間목표) |
| ⑤ 國內貯蓄率 | 18.3 % | 30.0 % | |
| ⑥ 産業構造(1968年構成比) | 100 % | 100 % | |
| 1次産業 | 29.4 % | 18.3 % | |
| 2次産業 | 24.8 % | 64.2 % | |
| 3次産業 | 45.8 % | 17.5 % | |
| ⑦ 工業總生産 | 12.2억\$ | 19.5억\$ | |
| ⑧ 工業成長率(平均) | 24.1 % | 12.7 % | 14% (71~6년 年間목표) |
| ⑨ 食糧生産 | 774 만 M/T | 349만M/T | |
| ⑩ 政府予算 | 13.1억\$ | 23.3억\$ | |
| ⑪ 軍事費 | 2.9억\$ | 7.0억\$ | 5.2억\$ (72년) |
| ⑫ 貿易 | 24.8억\$ | 5.5억\$ | 6.8억\$ (70년) |
| 輸 出 | 6.6억\$ | 2.8억\$ | |
| 輸 入 | 18.2억\$ | 2.7억\$ | |

物量面에서 보면 工業生産의 비교는 北韓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軍事費만 해도 韓國의 3億弗支出에 北韓은 7億弗로 훨씬 높다. 그러므로 消費水準에서 본 住民들의 生活은 相對적으로 北韓 편이 낮아 질수 밖에 없다.

國民總生産과 可処分所得 面에서 보면 一人당 GNP는 韓國이 223弗로 北韓의 210弗보다 높다. 그러나 이같은 一人당 數值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 北韓은 貨幣賃金과 實物賃金이 区分되어 있고 거기에 食糧은 配給券으로 또한 織物은 購入券으로 割當量을 制限하고 있으므로 個人이 받는 所得부터 축소되어 있는데다가 그러나 消費財貨의 購入이 不自由하므로 消費生活은 制約된다. 이같은 현상은 國內 貯蓄率을 보아 國民經濟의 擴大再生産을 위한 投資의 정도를 짐작할수 있는데 韓國의 貯蓄率이 18.3%인데 비해 北韓은 30%로 말하자면 強制貯蓄을 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를 逆으로 생각해 보면 消費性向 그자체가 韓國은 82%를 上廻하는 셈이고 北韓은 70%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看過할수 없다

賃金水準에서도 下級勤勞者의 賃金이 南韓에서 平均(70년) 17,490원으로 指摘되고 있는데 北韓의 중견 5級工들이 70원線이다. 이를 美弗貨로 換算해 볼때 韓國의 44弗에 비해 北韓은 28弗이다. 이를 韓國의 貨幣價值로 환산해도 마찬가지인데 北韓의 賃金水準은 南韓의 55%에 불과하다고 보겠다.

北韓에서 農家戶當 現金 및 現物收入을 앞서 <表 21>에서 보면 60년때에 알곡이 1.8倍, 現金이 2倍씩 각각 增加收入되어 69年の 年間 收入은 알곡 3,780 Kg에 現金 600원으로 나타나

고 있다.

같은해에 韓國에서 農家所得은 69년에 農業所得 167,128 원과 農業以外の 所得 50,746 원으로 合計 217,874 원에 달하고 있다.

北韓의 農家所得을 韓國貨幣로 換算해서 比較해 볼때 韓國의 81%에 해당된다. 따라서 個人的 可処分所得線부터 北韓의 劣位가 들어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消費者選擇의 自由가 전혀 없는 北韓에서 消費生活은 낮을수 밖에 없다.

物價水準으로 보면 어떠한가 앞서도 살펴온 바와 같이 소고기 1 Kg의 價格은 北韓이 7원 50전 韓國이 1,000원인데 이를 환산하면 北韓의 소고기는 韓國貨幣로 1,200원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物價水準自体가 韓國보다 높다. 특히 時計나 毛織衣類 등은 턱무니없이 비싸서 高級 日用品은 손도 대기 어려운 實情임을 감안할때 北韓의 消費生活은 低次元의 實態를 면할수 없다. 다만 전체 工業成長 및 GNP의 成長은 어디까지나 北韓 住民의 生活과는 동떨어진다고 하겠다.

2. 中共과의 比較

中共은 1949년에 大陸을 석권한 뒤로 서서히 社會主義·經濟體制를 確立해 나아갔다. 生活水準이 세계적으로 취약했던 中國은 무엇보다도 衣·食·住生活이 가장 험벗은 地域이었다. 1924년에서 1933년 期間에 住民의 一人당 1日 營養섭취량을 보면 平均 1,940 카로리로 나타나 있고 最大로 잡아도 2,130 카로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中共이 들어선 뒤에 이같은 事情은 점차 改善된것으로 보인다. 우선 中共의 最近 所得水準을 보면 다음 <表 32>와 같다. 1952년의 人口는 5億7千万名 GNP는 710億元 (中共貨幣)으로 1人當 GNP는 124元에 불과 하였다. 1968년에 보면 人口는 6億6千万名으로 大幅늘어났고 전체 GNP는 1080億元으로 1人當 GNP는 52년 基準으로 32%가 증가한 164元

<表 32> 中共의 国民所得 (1952 ~ 1965)

| | 純国民所得 10 億 元 | 人 口 百 万 名 | 1 人 當 GNP 元 | 一人當 GNP 增加指数 (1952=100) |
|------|-----------------|--------------|----------------|----------------------------|
| 1952 | 71.4 | 575 | 124 | 100 |
| 1953 | 75.3 | 588 | 128 | 103 |
| 1954 | 79.3 | 602 | 132 | 106 |
| 1955 | 82.3 | 615 | 134 | 108 |
| 1956 | 92.1 | 630 | 146 | 118 |
| 1957 | 95.3 | 645 | 148 | 119 |
| 1958 | 108.0 | 659 | 164 | 132 |
| 1959 | 104.4 | 669 | 156 | 127 |
| 1960 | 95.9 | 676 | 142 | 114 |
| 1961 | 92.2 | 680 | 136 | 110 |
| 1962 | 94.0 | 687 | 137 | 110 |
| 1963 | 98.1 | 697 | 141 | 114 |
| 1964 | 104.2 | 712 | 146 | 118 |
| 1965 | 108.1 | 728 | 148 | 119 |

資料: T.C.Liu, in Joint Economic Conomic Committe 1967.

p.50.

으로 늘어나 있다. 그러나 이때 이후로 GNP成長은 매우鈍化되고
고 中·蘇紛爭 및 文化革命에 휘말려 低調한 實情으로 보인다.

60년대 이후 中共經濟의 停滯現象은 北韓과도 같은 趨勢이다
北韓도 61년부터 시작된 7個年計劃이 계속 不振할수 밖에 없었
고 드디어 3個年 延長에 이르렀다.

中共에서는 무엇보다도 食糧生産이 큰 問題이다. <表 33>에서
보는바와 같이 1960년의 穀物生産量은 1억 6千万吨에 다달았고
이때 人口 一人當 食糧은 237 Kg으로 1952년을 基準해서 볼때
- 18%에 달하고 있다.

北韓이 60년에 알곡 1人當 消費量이 當時의 糧作으로 355Kg
(表 20 參照)에 달하고 있고 64년에는 373Kg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中共의 食糧消費量 보다는 훨씬 높은 實態이다. 中共은
1965年에도 1人當 食糧消費量이 283Kg에 불과하여 1952년 基
準年度水準보다도 미약하며 여기에는 5千7百万吨의 輸入食糧이
包畵되어 있는데도 그러하다. 따라서 北韓에 비하면 현저하게 住
民들의 食生活이 뒤지는 實態임을 알 수 있다.

中共의 一人當 貨幣賃金과 實質賃金の 現狀은 다음 <表 34>와
같거나와 1952년을 基準해서 볼때 1957년에 가장높은 水準을
나타내고 있는데 貨幣賃金은 637元 이를 實質賃金으로 換算해보면
583元에 불과하다. 이때의 生計費指數가 109.2%인데 비해서
賃金增加指數는 131로 결국 생계비지수 9.2% 상승에 賃金은
31% 증가된 셈이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人民公社制度가 失敗
하고 政治, 經濟的 混亂을 빚은 나머지 1965년에 보면 貨幣賃金

<表33>

穀物生産推移 (1949~1965)

| | 生産量 百万吨 | 輸入 百万吨 | 総食糧 | 人口 百万名 | 一人当食糧 kg | 増加指数 (1952=100) |
|------|------------|-----------|-----|-----------|-------------|--------------------|
| 1949 | 150 | | 150 | 545 | 275 | 93 |
| 1952 | 170 | | 170 | 575 | 296 | 100 |
| 1953 | 166 | | 166 | 588 | 282 | 95 |
| 1954 | 170 | | 170 | 602 | 282 | 95 |
| 1955 | 185 | | 185 | 615 | 301 | 102 |
| 1956 | 180 | | 180 | 630 | 286 | 97 |
| 1957 | 185 | | 185 | 645 | 287 | 97 |
| 1958 | 204 | | 204 | 659 | 310 | 105 |
| 1959 | 170 | | 170 | 669 | 254 | 86 |
| 1960 | 160 | | 160 | 676 | 237 | 80 |
| 1961 | 170 | 6.2 | 176 | 680 | 259 | 88 |
| 1962 | 180 | 5.3 | 185 | 687 | 269 | 91 |
| 1963 | 185 | 5.7 | 191 | 697 | 274 | 93 |
| 1964 | 195 | 6.8 | 202 | 712 | 284 | 96 |
| 1965 | 200 | 5.7 | 206 | 728 | 283 | 96 |

<表 34> 一人当 貨幣賃金 및 実質賃金

| | 貨幣賃金 | 生計費指數 (1952=100) | 不変賃金 1952年價格 | 実質賃金指數 (1952=100) |
|------|------|---------------------|-----------------|----------------------|
| 1949 | 262 | | | |
| 1950 | 322 | 88.6 | 363 | 81 |
| 1951 | 379 | 99.1 | 382 | 86 |
| 1952 | 446 | 100 | 446 | 100 |
| 1953 | 496 | 105.6 | 470 | 105 |
| 1954 | 519 | 106.9 | 486 | 109 |
| 1955 | 534 | 107.3 | 498 | 112 |
| 1956 | 610 | 107.1 | 570 | 128 |
| 1957 | 637 | 109.2 | 583 | 131 |
| 1958 | 551 | 108.3 | 509 | 114 |
| 1959 | 531 | 108.3 | 490 | 110 |
| 1965 | 583 | 108 | 540 | 121 |

583元 이것의 実質賃금이 540元에 불과하여 57년보다 크게 떨어져 있다. 生計費指數가 52년 기준 8%上昇한 셈이고 賃金指數는 21%增加된 셈이다.

北韓과 中共을 比較해 볼때 1956년에 北韓의 貨幣賃金は 301원 여기에 実質賃金 198원(59년值)로서 이 경우 對美弗貨換率は 中共이 2.46元이고 北韓 2.5원이므로 비슷하게 볼때 中共

의 賃金水準이 높다고 볼 수 있다.

北韓과 中共의 消費水準에서 食糧消費量은 中共이 적으나 賃金水準이 中共이 높은 셈이다.

이에 관한 中共의 消費支出을 보면 <表 35>와 같다. 1952년에 보면 食料費는 전체의 60.6%로 가장 높고 衣類購入費가 14.4% 그리고 燃料費 9.4% 住宅費 5.6%로 恩賜係數가 대단히 높은 정도의 낮은 消費生活이다. 이를 1957년에 보면 食糧費는 전체의

<表 35> 消費支出推計

(單位：10 億圓)

| | 1952 | 1953 | 1954 | 1955 | 1956 | 1957 |
|----|------------------|-------|-------|-------|-------|------------------|
| 食糧 | (60.6) 33.08 | 33.59 | 36.44 | 36.35 | 36.64 | (57.4) 38.39 |
| 衣類 | (14.4) 7.89 | 8.79 | 8.43 | 7.82 | 10.40 | (14.4) 9.62 |
| 燃料 | (9.4) 5.11 | 5.22 | 5.35 | 5.46 | 5.58 | (8.6) 5.72 |
| 住宅 | (5.6) 3.04 | 3.10 | 3.16 | 3.25 | 3.31 | (5.1) 3.40 |
| 其他 | (10.0) 5.43 | 6.23 | 7.08 | 7.89 | 8.77 | (14.9) 9.74 |
| 計 | (100.0) 54.55 | 56.93 | 60.46 | 60.77 | 64.70 | (100.0) 66.87 |

() 内는 構成比임.

57.4%로 57년 보다 줄어들었고 衣類費는 전체의 14.4%로 같은 比重이며 燃料費의 比重이 8.6%로 낮아졌고 住宅費도 5.1%로 낮아졌다. 其他費用이 높아진것은 文化費의 支出이 커

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볼때 52년에 비해서 生活水準이 向上되고 있는 점이 보인다.

그러나 北韓과 中共과의 消費支出의 構成을 비교해 보면 1957년에 北韓에서 <表 5 參照> 食料費는 58.7%를 기록하고 그뒤 현저하게 激減한 點을 비교해 보면 中共보다 北韓 住民들의 生活水準이 훨씬 높다고 指摘된다. 衣類費도 21.2%로 中共보다 훨씬 높고 住宅費는 0.7%로 中共보다 낮으며 燃料費도 2.3%로 낮다 그대신 文化費는 14%로 中共보다 높다.

이로서 北韓은 中共에 비교하여 보면 北韓의 消費水準이 中共보다 훨씬 높은 편이며 60년에 와서는 그 차이가 현저하다. 北韓에서 居民들의 生活과 中共의 一般水準이 비교된다고 하겠으나 그래도 北韓이 中共보다도 有利한 生活條件을 享受하고 있다고 보겠다.

3. 蘇聯과의 比較

蘇聯國民의 所得 및 消費生活은 社會主義의 母國으로서 일찍부터 中央計劃當局에 의하여 規制되어온 典型的인 模型이다. 처음부터 蘇聯은 重工業偏重政策을 시행하여 왔기 때문에 住民들의 生活相은 별로 고려되지 않고 있었으나 1917년 共產革命이래 長久한 세월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生活水準은 크게 向上되어 있다.

蘇聯의 GNP는 1966년에 3천 5百억美弗로 經濟大國이고 一人當

GNP는 1,532弗로 대단히 높다. 따라서 労働者 農民들의 所得 消費水準은 向上되어 있다.

이를 家計消費支出에 重点을 두고 살펴 보면 蘇聯의 家族構成은 이미 核家族化되어 있어 家長의 賃金收入의 전체 收入의 50%를 占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婦人 및 家族員의 所得上 昇은 높은 편이다.

蘇聯의 統計에 의해서 보면 家族成員 一人당 所得變化의 推移는 <表 36>과 같다. 一般적으로 40 루블에서 70 루블의 所得을 얻고 있으며 1951년과 1961년을 볼때 40 루블짜리 收入의 比重이 51년에 45%로 부터 61년에 불과 8%이다. 따라서 高所得者로의 移行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表 36> 家族成員 1人당 所得變化 (月額)

(單位：%)

| 年次 家族 | 1951 | | 1959 | | 1961 | |
|----------|------|-------|------|-------|------|-------|
| | 數 | 比率 | 數 | 比率 | 數 | 比率 |
| 40 루블이하 | 45 | 45.0 | 15 | 16.3 | 8 | 8.0 |
| 41~70 루블 | 43 | 43.0 | 57 | 62.0 | 62 | 62.0 |
| 71 루블 | 12 | 12.0 | 20 | 21.7 | 30 | 30.0 |
| 計 | 100 | 100.0 | 92 | 100.0 | 100 | 100.0 |

資料：에코노미·체스카·갓셀루 (1964. 1月号)

이 당시의 對美弗 루블貨의 換率은 1루블이 0.9美弗이므로 루블貨가 美弗貨보다 0.1포인트 낮은 水準이다. 그러므로 一般勞動者들의 月額 貨幣賃金이 70루블 以內의 水準이다. 1960년대에 가면 이들 勞賃水準은 100루블을 넘어 서고 있다.

蘇聯과 北韓의 勞賃水準을 비교하며 北韓의 3級工이 30원에서 6級工이 84원 이므로 對美弗貨換算으로 보면 15美弗~33美弗에 해당된다. 따라서 蘇聯의 切半밖에 안되는 賃金水準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으나 다른 共產國家들과 비해서는 北韓이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

蘇聯의 衣食生活에 대한 消費指標은 다음 <表 37>과 같다 食品類에서 1950년에 보면 빵 172Kg, 감자 241Kg, 乳製品, 172Kg 등으로 높고 野 53Kg 등으로 되어 있고 牛乳, 乳製品의 比率이 높아져서 50년의 172Kg, 60년의 240Kg에서 69년에 304Kg으로 높아지고 있는점이 눈에 뜨인다. 北韓에서 人口 一人當 食糧消費量이 60년에 355Kg임을 감안해 볼때 蘇聯에서와 같은 水準이나 蘇聯은 이들 단백질에서 조금 높고 乳製品 및 脂肪이 더 높다. 따라서 食生活에 있어 食料部門은 蘇聯보다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

衣類部門에서 蘇聯은 60년에 보면 織物이 26.1㎡ 上下의 3.3着 및 양말 4.9足등으로 北韓 보다는 높으나 北韓에서 年間 織物 消費量 7.5㎡는 대단히 낮은 蘇聯의 4分1에 해당되고 上下衣 1着은 소련의 3分1이며 양말 3켄레등으로 훨씬

<表 37>

人口1人当 主要食品斗 衣製品

| 品目 | 單位 | 年 度 | | | | | | 比 率 | |
|---------|-----|------|------|------|------|------|------|-----------|-----------|
| | | 1940 | 1950 | 1958 | 1960 | 1965 | 1969 | 1950/1940 | 1960/1940 |
| 빵 | kg | 149 | 172 | 172 | 164 | 156 | 149 | 115 | 110 |
| 감 | 자 | 191 | 241 | 150 | 143 | 142 | 131 | 126 | 75 |
| 野 菜 | " | 53 | 51 | 71 | 70 | 72 | 76 | 96 | 132 |
| 牛乳・乳製品 | " | 141 | 172 | 238 | 240 | 251 | 304 | 122 | 170 |
| 植物性油脂 | " | 4.1 | 2.7 | 4.7 | 5.3 | 7.1 | 6.6 | 66 | 129 |
| 肉 脂 肪 | " | 24 | 26 | 36 | 40 | 41 | 47 | 108 | 167 |
| 魚 | " | 7.2 | 7.0 | 9.8 | 9.9 | 12.6 | 15.8 | 97 | 138 |
| 卵 子 | 個 | 56 | 60 | 108 | 118 | 124 | 148 | 107 | 193 |
| | kg | 14.7 | 11.6 | 24.2 | 28.0 | 34.2 | 37.8 | 79 | 193 |
| 織 物 | 平方m | 16.2 | 16.5 | 23.7 | 26.1 | 26.5 | 29.8 | 101 | 161 |
| 綿織物 | " | 13.8 | 13.9 | 17.4 | 19.2 | 19.1 | 21.1 | 101 | 139 |
| 毛織物 | " | 0.8 | 1.3 | 1.9 | 2.2 | 2.5 | 2.7 | 153 | 275 |
| 絹織物 | " | 0.3 | 0.6 | 3.2 | 3.4 | 3.6 | 4.1 | 200 | 1,133 |
| 亜麻織物 | " | 1.3 | 0.7 | 1.2 | 1.3 | 1.3 | 1.5 | 54 | 100 |
| 衣 服 | " | - | 0.3 | 0.5 | 0.6 | 0.9 | 1.6 | - | 200 |
| 上 下 衣 着 | " | - | 0.8 | 2.0 | 2.3 | 3.3 | 3.6 | - | 288 |
| 양 말 類 | 足 | 2.5 | 2.6 | 4.3 | 4.9 | 5.8 | 6.1 | 104 | 196 |
| 皮 靴 | " | 1.1 | 1.1 | 1.7 | 1.9 | 2.4 | 2.8 | 100 | 173 |

資料：国民經濟 統計集 597 頁（蘇聯刊）

낮다 이는 北韓의 衣類購入이 蘇聯에 比해서 대단히 낮다는 事實을 立証해 주며 따라서 文化施設 및 住宅 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住宅을 비교해 보면 蘇聯은 1人當 住宅 空間이 60년에 9.25㎡로 되어 있어 北韓의 6坪정도가 割當되고 있지만 이것은 都市 아파트의 경우로서 비교가 어렵다.

다만 北韓과 蘇聯의 衣,食,住 生活의 비교를 보면 物量面 보다는 內容 및 品質에 있어서 北韓은 월등히 뒤떨어 지므로 事實上 比較 그 자체가 成立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V. 結 論

社會主義體制가 確立된 北韓의 모든 經濟活動은 「人民經濟發展에 대한 計劃」속에 綜合的이고 具體的으로 表現된다.

이들 經濟計劃은 生産에 主目的을 두고 그것도 重工業 및 軍需工業에 集中하고 있기 때문에 輕工業 및 특히 住民들의 消費生活은 항상 制限되어 있다.

지금까지 北韓의 消費構造를 推論해 오는 過程에서도 이같은 生産體制에의 置重과 劃一的인 消費生活의 制約때문에 우리는 北韓의 現實的인 消費現狀이나 消費生活의 內容을 明確하게 把握하기가 至難한 課題임을 느껴 왔다. 이같은 狀況은 앞으로도 쉽사리 改善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展望된다.

北韓은 1960年代를 前後로 人民生活水準의 向上이란 政策目標을 크게 내세우고 상당한 進展을 이룩한바 있었다. 그러나 7個年計劃 그 自体가 全面的으로 變質되고 3個年 期間延長에 의해서도 修正計劃이 제대로 達成하지 못함에 이르러 住民들의 消費生活向上이란 課題는 退潮를 免치 못하였고 이로서 70年代에 이르러 北韓의 消費構造는 아무런 變化를 期待할수 없는 實情에 處하고 있다.

1971年 부터 施行되고 있는 「人民經濟發展 6個年計劃」역시 몇가지 政策目標을 強調하고 있다. 첫째 重勞動과 輕勞動 및 工業勞動과 農業勞動 그리고 女性을 家事勞動으로 부터 解放시킨다는 三大技術革命의 課題 들에 生産潛在力의 最大한 利用, 세계, 社會

主義 文化建設의 促進 四째, 革命化 勞動段級の 推進 다섯째 全人民의 武装化 여섯째 人民生活의 均衡的 体系的發展을 적극 推進한다 일곱째 國際革命力량의 團結 등으로 基本目標을 設定하고 있다.

이상의 6 個年計劃에서 일곱가지 基本目標을 살피 볼때에 그중에서 단하나 「人民經濟生活의 均衡的 体系的發展」이란 課題가 浮刻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住民生活의 向上을 어느만큼 期할지 전혀 予測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6 個年 計劃은 모두가 國防力強化와 生産力強化에 置重되어 있기 때문이다.

6 個年計劃에 따른 主要目標을 보면 計劃期間中 北韓의 UNP는 70 年 對比 年平均 10.3%의 成長率에 의한 目標年度에 1.8 倍로 增加 시킬것이 策定되어 있다. 이것은 60 年代 7 個年計劃에서 GNP 成長率 15.2% 보다도, 낮은 것으로 現實的인 애로가 勘案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중에서 工業總生産의 增加는 6 個年 計劃期間 동안에 2.2 倍이며 生産財는 2.37 倍 그리고 消費財는 2.0 倍로 策定되어 있다. 消費財가 生産財 보다도 적게 策定되어 있다.

따라서 根本的인 面에서 볼때 70 年代 이후에도 北韓은 生産力 增強이나 國防力強化에 치중되기 마련이고 이때문에 住民生活의 向上이나 消費生活의 改善에는 하등의 進展이 없는것 같다. 분명히 北韓의 經濟計劃을 통해본 生産과 消費와의 사이에 矛盾은 심각한 것 같다 최근에 北韓의 予算 中에서 國防費支出의 比重은 71 年에 만도 13.1% 72 年에는 17%로 大幅 增大되고 있다.

이로서 볼때 6個年 計劃期間中에 消費品의 供給增加는 어느만큼 일것인가 計劃內容에 따라 消費財의 增加는 다음과 같다.

織物은 5~6億m 內衣는 1.4倍, 웨타 및 자켓 2.1倍 양말 1.8倍, 신발類 7,000万足, 가죽구두 1,000万足 종이 1.8倍, 알미늄製品 2.8倍, 유리製品 5.2倍 유리병 3.7倍, 도자기 2.3倍 시계 2.5倍 副食物增加 2.6倍, 肉類增加 5.9倍, 果實加工品 9.2倍, 청량飲料 4.3倍, 조미료 2,800屯, 알곡 700~750万屯, 벼 350万屯, 町步当收穫高 논벼 5.3屯 옥수수 4.2屯 콩 2.4屯, 農村트랙터保有 4.2倍, 貨物車 2.5倍 果實生産量 80~100万屯 肉類 40~50万屯 卵類 30万屯, 乳類 6万屯, 羊毛 2,500屯, 水産物 160~180万屯, 등으로 상당한 消費品增加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北韓의 消費品增加도 人口增加 및 物價上昇을 勘案해보면 低調한 편이며 특히 国防經濟나 軍需工業 때문에 蹉跌을 빚을것으로 보인다.

